

# 中國 少數民族의 服飾 研究(1)

— 東北 · 西北地域의 少數民族을 중심으로 —

忠南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朴春順

## 目 次

I. 序 論	VI.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影響
II. 中國 少數民族의 歷史的 背景	VII. 結 論
III. 中國 少數民族의 概觀	參考文獻
IV.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概觀 및 特徵	ABSTRACT
V.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類型	

## I. 序 論

悠久한 中國의 文明史와 같이, 中國의 服飾文化 또한 오래되었고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服飾文化史의 觀點에서 볼 때 어느 地域을 막론하고 서로 다른 民族의 服飾 慣習이 일치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그리고 同一 地域에 있어서도 歷史文化傳統과 地域차이에 따라 各民族의 服裝이 같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現狀을 中國民族 服飾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中國은 上古時代부터 多民族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國家로서 56개 民族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56개의 다른 服裝이 있을 뿐 아니라, 同一 民族 내부에서도 그 支流가 다르면 服飾習俗 또한 같지 않아, 中國大陸은 하나의 거대한 服飾 展覽館을 연상하게 한다. 이들 少數民族들은 그 역사가 깊어 甲骨文 속에도 中國의 正統民族인 漢族과 접촉하고 있었던 少數民族들의 명칭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中國이 오래동안 門戶를 개방하지 않아, 服飾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의 研究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最近의 開放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中國

文化에 접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中國의 傳統의인 服飾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中國服飾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少數民族 服飾을 고찰해 봄으로써 中國服飾의 源流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北 아시아 服飾의 源流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本 研究는 中國의 少數民族의 服飾을 地域的으로 分析 考察함으로 地域의인 特性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른 地域과 比較研究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각 地域과 特徵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民族間의 異質의 服飾形態와 깊이 관련있는 服飾形態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韓國 傳統服飾의 根源과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本論文의 본질적인 목적과, 研究의 意義도 내재해 있는 것이다.

本 研究는 우선 少數民族 服飾研究를 위하여 먼저, 古代以後 中國의 邊境地方에 居住하고 있던 少數民族의 실상을 살펴보고, 現代의 少數民族 服

飾 및 그 특성을 검토한 뒤에, 이들 지방의 유사점과 다른 점을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중국 소수민족의 복식을 類型別로 分類하여 하나의 客觀的 事實로 제시하고자 한다.

少數民族의 人口는 비록 稀少하지만 그 分布地域이 廣大할 뿐만 아니라 多數가 邊方의 國境地域에 위치해 있다. 즉 동쪽은 臺灣에서 남쪽은 海南島, 서쪽은 新疆, 西藏, 북은 寧夏, 內蒙古에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어, 단기간 안에 이 모든 지역을 답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研究에서 우선 우리나라와 비교적 관련이 깊은 中國의 東北地方과 西北地方으로 한정시켜 연구하고, 南部地方과 西南地方을 포함하는 全面的인 研究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中國 東北地域의 少數民族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朝鮮族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韓國服飾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現地를 방문했다라도 寫眞 資料들이 미비한 것은 기타 文獻이나 畫報를 이용하였고, 또한 현재 少數民族이라 해도 俄羅斯와 같은 민족은 현재 거의 西洋服을 착용하거나, 中國의 漢族服飾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적인 服飾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의 소수민족복식에 대한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식용어는 어디까지나 中國服飾을 대전제로 한 少數民族의服飾에 대한 연구임으로 현재 중국문헌의 표현법을 따랐다는 사실도 아울러 명시해 놓는다.

## II. 中國 少數民族의 歷史的 背景

### 1. 北方地域의 少數民族

中國의 北方地域에는 몇 천년 동안 수많은 少數民族들이 明滅을 거듭하였다. 그들의 種族的 源流는 매우 오래되었고, 시대에 따라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 중 주요한 민족을 들어 본다면 匈奴, 東胡, 突厥과 蒙古등으로, 이들은 遊牧民族의 일반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肉食을 주로 하고, 가옥형태는 穹廬였고, 服飾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獸皮다.

春秋時代(紀元前 770~403)에 北方의 각 氏族이나 部落을 戎, 狄이라 칭했던 것이 역사에 보인다. 戎에는 山戎·犬戎 등이 있었고, 狄에는 赤狄·白狄 등이 있어 이들은 黃河유역이나, 大漠南北에 群居하고 있었다. 그러나 戰國時代 후기에 이르러 인구가 비교적 많은 部族聯盟이 출현하였는데 北方地域 少數民族의 첫번째 결집체가 곧 匈奴이었고, 이어서 다음에 東胡와 烏桓, 鮮卑가 뒤를 잇는다.

匈奴라는 이름은 先秦時代부터 西漢初에 이르기까지, 匈奴라는 이름외에 “胡”라는 칭호가 있었다.<sup>1)</sup> 여기에서 보면, 匈奴는 熏肅·鬼方·獯鬻·戎狄 등과 종족적으로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秦나라 말기에 冒屯 匈奴單于<sup>2)</sup>는 동쪽으로 東胡를 멸망시키고, 西쪽으로는 月氏를 타파하고, 南쪽으로는 樓煩을 병합하고 나아가 북쪽으로는 丁零을 정복시켰다. 그리하여 그 경계가 東은 遼河에서 시작하여 西는 忽嶺에, 南은 長城에, 北은 拜耳峽湖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東漢初, 匈奴는 南北으로 분할되어 漠南의 南匈奴는 漢人거주지역 부근으로 移住하고, 漠北의 北匈奴는 紀元 97年 東漢과 南匈奴 연합군에게 의해 瓦解되었다. 북흉노의 일부는 서쪽으로

1) [史記] 卷 110 「匈奴列傳」

2) B.C. 209~174, 單于是 匈奴 最高統治者의 稱號임.

이주한 후, 나중에는 서쪽으로 흑해북안을 지나 東歐로 진입하여, 현대 헝가리의 선민이 되었고, 일부분의 북흉노는 南으로 내려가 鮮卑나 柔然族과 融合되었다.

漢代에 漢族居住地로 內遷한 匈奴人은 魏晉時代에 汾水유역에 多數 옮겨와 살면서 屠各胡, 虜水胡등의 支系를 파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五胡十六國時代에 匈奴귀족은 前越·夏·北凉 등의 政권을 수립했던 역사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긴 史과정중 漢族에 融合되던지, 다른 少數民族과 결합한 후 다시 漢族으로 同화하기도 하여, 南北朝時代 이후 흉노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다시 出現하는 浮沈한다.

漢代에 堅昆이라 칭했던 少數民族은, 南北朝時代에 結骨혹은 乞骨이라 하고, 唐代에 唃廝囉라 칭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지금의 에니세이강 上流 一帶에 분포되어 있다가, 唐에 부속되었으며 나중에는 回乞을 격파하고, 10~12세기 대부분은 天山山脈西部로 이동하였으며 후에는 當地 土着民族과 融合하여 지금 哈薩克族 혹은 柯爾克孜族이 되었다.

大漠南北에 남아있던 民族과 中原의 突厥族系部族은, 후에 漢族과 契丹·蒙古族중으로 融合하였다. 契丹·黨項羌·女眞族 등은 宋·遼·金時代에 東北지역에서 활동을 개시하였고, 蒙古族 각 부족은 北方 草原각지에서 산발적으로 蹶起를 개시하였다.

蒙古族은 원래 東胡族系에서 發源하였으나, 장기간에 복잡한 민족발전과정을 거쳐, 13세기초에 본격적인 形성을 개시하였다. 蒙古는 唐代에 처음 나타나, 室韋의 한파를 이루고 있었으나,<sup>3)</sup> ings칸이 蒙古部의 수장이 되어 泰赤烏·弘吉刺·塔塔兒·蔑兒乞·克烈·蠻 등 몽고의 초원에 산거하고 있던 모든 소부락을 征복하여 大蒙古國을 건

립하였다. 1271년, ings칸의 손자 忽必烈은 元이라 국호를 개칭하고 南宋을 멸하여 중국 政토를 통일하였다. 元朝는 백년을 통치하고 明에게 망하였다. 明代에, 大漠南北의 타타이 分포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新疆북부에 瓦刺가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清代에 이르러 서부 瓦刺는 衛拉特 혹은 厄魯特라 칭하고, 漠南을 內蒙古, 漠北을 外蒙古라 하였으며, 지금 蒙古族은 內蒙古自治區에 거주하고 있다.

## 2. 東北地域의 少數民族

中國 古代의 東北地域에는 4개의 主要 民族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초로 동북지역에 거주하면서 나중 女眞族, 滿洲族의 先祖가 된 肅慎族과, 북부의 중앙에 거주하면서 나중 朝鮮쪽이 된 扶余族, 몽고족의 先民이었던 東胡族, 그리고 漢族등이다.

肅慎이하 滿洲일대의 이 민족들은, 古代 東北地區의 主體民族으로 거의 3000년의 장구한 史속 到 呂婁·勿吉·靺鞨·女眞·滿洲 등 다양한 名稱으로 불리며 發展과정을 거친다. 肅慎은 中國 동북지역에 일찍이 나타나는 민족의 하나로, 舜, 禹시대에서부터 肅慎人은 이미 中原지구에 關係를 맺어, 周 武王때에 그들이 周王朝에 朝貢하였고, 中원의 韓人들은 他們을 “北土”라고 칭하였다고 한다.<sup>4)</sup>

漢代以後, 肅慎人은 邑婁로 개칭하고 農業을 主業으로 삼았지만, 養猪를 선호하였다.<sup>5)</sup> 邑婁貂는 三國시기에 이미 中원민족의 御寒珍品이었다. 北朝 및 隋唐의 史書에서 나타나는 勿吉과 靺鞨은 같은 민족을 지칭하는 同어였다. 隋代의 靺鞨人은 粟末, 白山, 伯出, 安車骨, 拂淪, 號室, 黑水 등 7대부족은 東臨海邊에 分포하고, 南은 지금의 吉

3) [舊唐書] 「北狄 室韋傳」大山之北 有大室韋部 落其部落傍望建河居 其河源出 突厥東北界俱輪曰 云云 又東經 蒙兀室韋之北 云云

4) [左傳] 昭公九年

5) [後漢書] 卷115 「邑婁」 ‘好養猪 食其肉 衣其皮’

林市, 北은 黑龍江 以北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세력을 형성하였다. 隋 698년, 高句麗의 遊牧民이었던 大祚榮이 말갈족을 취합하여 松花江 상류, 白頭山 北麓 일대에 振國의 정권을 건설하였다. 唐代에 대조영은 渤海라고 國號를 개칭하고 首都는 上京 龍泉府에 두었는데 지금의 흑룡강省 寧安縣이다. 中唐이후 國勢가 興盛하여, 그 국경은 조선반도 북부, 북은 송화강하류, 서남은 요령성에 이르렀다. 발해는 정치와 군사제도가 唐制를 모방하였고, 경제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여 당시에 海東盛國이라 하였다. 渤海는 200여년 번영하다가, 이후 契丹人의 遼에 멸하였다. 渤海 遺民 대부분은 南으로 遼河 流域으로 이주하여 각지의 漢人이나 契丹人 등과 雜居하여 融化되던지, 조선 반도로 이주하여 高麗의 성원이 되었다.

발해 滅亡후, 말갈 七部의 하나인 黑水靺鞨은 南으로 진출하여 계속 번영하였다. 契丹人들이 그들을 女眞이라 칭한 이후,<sup>6)</sup> 靺鞨이라는 이름 대신 女眞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그 후 합병전쟁을 통하여 여진부락이 완전히 통일되었다. 1115년 完顏部는 핵심적인 여진인이 되어, 首領 阿骨打의 領導下에 金나라 정권을 건립하였다. 이후 金은 遼나라를 멸하고, 北宋을 중국 남부로 밀어낸 뒤에 燕京에 천도함으로써 대부분의 女眞人도 中原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朝이후 중원지구의 거주하는 여진인의 민족 전통특색은 점차 소실되게 되었다.

그러나 東北 地方에 거주하던 女眞人은 明朝 中葉이후, 흑룡강·송화강에서 남천하여 輝發河와 渾河流域에 定着하여 살면서 경제 문화가 신속히 발달하였다. 16세기 後半, 努爾哈赤는 建州女眞을 이끌고 女眞 각부를 통일하였고 이어, 1636년 그의 아들 皇太極은 帝라 자칭하고, 國號를 “清”이라 하고, 그 본족인 여진을 만주라 하여, 이후로 여진족을 만주이라 칭하게 되었다. 淸朝는 260여

년간 전국을 통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만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원거리의 여진부락은 지금의 赫哲族, 鄂溫克族, 鄂倫春族의 先祖가 된다.

동북지역 또 하나의 古老민족인 濊貊族은 西漢時期에 송화강 상류에서 중류 일대에 扶余國을 建國하였다. 부여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목축도 비교적 발달하여, 良馬와 各種 皮毛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5세기 말 부여는 勿吉에 멸하고 그 유민은 고구려를 세우는 조선족의 일부가 되었다.<sup>7)</sup>

東胡族의 근원 또한 매우 역사가 오래다. 戰國時代 東胡는 燕國과 여러차례 전쟁을 하였다. 동북지구에서 활동한 東胡系 古代民族은 중국의 삼국시대에서 남북조시기의 烏桓과 鮮卑, 隋唐시기의 室韋, 奚와 契丹 등이 있었는데 그들중의 몇몇 부족은 漢人과 잡거하였다. 室韋는 최초로 송화강, 흑룡강유역에서 활동하였고, 수많은 부락으로 나뉘어, 그중 한 과인 蒙兀室韋는 西遷하여 蒙古族 先祖의 하나가 된다.

### 3. 西北地域의 少數民族

중국의 서북지역에 위치하는 邊疆省區를 예로부터 西域이라 한다. 서역의 關門인 河西走廊, 지금의 甘肅省은 바로 많은 민족의 叢居지역이어서 塞·諸羌·月氏·烏孫·匈奴·鮮卑·吐谷渾·柔然·壓達·鐵勒·突厥·吐蕃·回骨·契丹·黨項·蒙古 등의 여러부족이 있었다. 또한 이 地域은 많은 민족의 遷都 무대가 되어 왔다. 이 地域은 蒙古高原·靑藏高原·중앙아시아내륙 오아시스와 초원, 남아시아 문명국과 지리적 유대가 있었던 관계로, 고대와 중세의 동서양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교류의 공도였다. 이런 지역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외래민족인 吐火羅人·페르시아인·大食人등이 활동한 지역이기도 하다.

6) [遼史] 太祖本紀

7) [三國志] 卷13「烏丸鮮卑夷傳」卷30「扶餘」

[尙書]「禹貢」에 의하면, 積石山 以西에서부터 지금의 新疆경내의 昆侖·祁支·渠搜등의 고대 민족을 모두 “西戎”으로 불러왔다. 西戎 중에서 允姓인 戎은, 감숙성 서부의 돈황일대에서 유목하고 있었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이들 允戎은 月氏를 파밀고원 남으로 쫓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월씨는 전국시대 말기에 匈奴를 격퇴시키고 伊犁河유역으로 서천하였으나, 오래 머물지 못하고, 烏孫에게 쫓기었다. 東漢시기, 흉노는 서역북부로 西遷하고, 4·5세기에 선비인은 천산일대로 이주하고, 堅昆, 丁零등 또한 남으로 이동한다.

중국이 五胡十六國시기로 접어들면서 漢族의 前涼 張氏·西涼 李氏·氏族의 前秦 符氏, 匈奴貴族 후예인 北涼 沮渠氏·南涼 赫連氏 등은 河西에 건국한 후 서역으로 그 세력을 신장하여, 서역과 중원의 관계를 촉진시켰다.

4세기, 鮮卑 拓跋部가 북방에서 蹶起하여 北魏를 건립하니, 그 세력이 河西 및 西域에 떨치게 되었다. 한편 靑藏·河西·南疆 등 지역에는 이 시기에 또 다른 강대한 민족 吐谷渾이 있었다. 4세기부터 柔然과 北魏가 漠北에서 대치하니 그 역량이 하서와 신강에 도달하였다.

552년, 鐵勒과 突厥인이 흥기하여, 柔然을 멸하고, 突厥汗國을 건립하였다. 당시 서역을 영유한 것은 돌궐인의 西支流인 西突厥汗國이다. 唐代前期, 西突厥은 매우 융성하여 7~8세기에 吐谷渾을 정복하고, 河西走廊과 지금의 신강남부지구에 진입하여 서역을 돌궐화시킨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唐代中後期인 9세기 중엽부터 서북민족은 분포상 큰 변화를 보이고, 토번왕국은 848년 붕괴하였다. 12세기 遼왕조의 支裔 耶律大石은 西征하여 신강에 진입하여 먼저 高昌위궐왕조를 정복하고, 후에 哈刺汗朝의 巴拉沙衮을 점령하여 西遼를 세웠다. 西遼 세력의 최성시에 西는 阿姆河유역과 錫爾河 유역의 河中地區, 東은 伊州(哈密)에 달했

다.

13세기초, 興起한 蒙古 세력이 新疆에 이르러, 高昌위궐汗國은 징기스칸에 귀순하고 후에 몽고인은 西遼屬地에 察合台汗國을 건립하였다. 明代, 신강지구의 察合台后王은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그 전파에 힘썼다. 이시기에 維吾爾族발전을 가져온 것은 維吾爾族이외에 신강과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하던 哈薩克·烏孜別克·柯爾克孜 등의 부족으로 지금의 신강지구 민족과 연원이 있는 종족이다. 16세기 후 哈薩克部和 柯爾克孜部는 北疆과 南疆서부를 점거하고, 察合台后王 및 禿忽刺特部는 南疆농업地域를 점거했다.

그러나, 明末 西域 정치무대에서 주요한 것은 蒙古人-瓦剌部였다. 清代에 들어와, 瓦剌部는 衛拉特이라 칭하고 4부로 나누어진다. 淸 高宗이 18세기 중엽 이들을 평정하고, 지금의 신강 위궐자치구 범위내에 기본상 현재의 민족 분포상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 Ⅲ. 少數民族의 概觀

#### 1. 少數民族의 組成

中國은 世界 最大의 領土를 갖는 국가중의 하나이며, 最多의 人口를 갖고 있다. 그리고 四大文明 발생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아주 일찍부터 발달된 文化를 이룩해 온 나라이다. 고대부터 중국은 多民族이 결합하여 이룬 人口衆多의 국가로서 中國 史書에는 각 지방의 민족들의 경제생산, 생활문화, 풍속습관, 언어문자 등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sup>8)</sup> 甲骨文에도 이미 殷人과 접촉한 羌方, 蜀方 등의 기록이 있다. 또한 이들 기록에는, 당시는 黃河中流 平原에 있었던 漢族先祖를 華夏族이라 부르고, 그들 주위 민족들을 北狄·南蠻·東夷·西戎<sup>9)</sup>라고 칭하였는데, 이들이 당시 소

8) 馬寅圭, [中國少數民族常識],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5), p.1.

9) [禮記], 「曲禮下」, 其在 東夷北狄西戎南蠻. [管子], 「小匡」, 東夷西戎南蠻北狄.

수민족의 범칭이었다.

史籍에 나타난 중국 역사상에 등장하고 있는 민족의 명칭을 보면, 夏에서 周朝에 이르는 동안 건이 · 于夷 · 方夷 · 黃夷 · 白夷 · 赤夷 · 玄夷 · 風夷 · 陽夷 등으로 구분되던 九夷<sup>9)</sup>와 흑룡강 유역의 종족으로 이후에 명칭이 邑婁 · 勿吉 · 靺鞨 · 女眞 등으로 바뀐 송화강 中流平原의 扶余, 산둥반도 동북의 萊夷, 淮河 中下流 일대의 徐夷 · 淮夷 등이 있다.

秦漢을 前後하여 동북지역에 출현한 匈奴 · 東胡 · 烏桓 · 鮮卑 · 契丹 · 室韋 · 靺鞨 · 萌古 등과 서북지역의 烏孫 · 丁零 · 突厥 · 堅昆 · 暠突 · 回紇 · 布魯特 등의 민족명칭이 있었고, 서남지역에 출현한 西南夷 · 濮 · 笮都夷 · 邛都夷 · 昆明夷 · 哀牢夷 · 僂 · 烏蠻 · 白蠻 · 牂牁蠻 등의 민족명칭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열거한 다른 시대의 다른 민족의 명칭들을 보면, 중국어 예로부터 多民族 국가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현재 중국은 漢族이 제일 많으며, 少數民族 人口는 全國의 6.9%를 차지 한다. 少數民族은 중국의 漢族을 제외한 少數의 民族을 총칭하는 말이다. 中國은 多民族國家이기 때문에 소수민족들도 모두 中國民族을 組成하는 개별 민족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中國大陸의 少數民族 人口는 1953년의 3532만 명에서 1990년의 9132만명으로 37년간 158.6%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의 평균 인구증가를 94.6%에 비하여, 64%가 높은 수치이다. 전국 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3년의 6.06%에서 1990년의 8.08%이다.

各 少數民族 人口의 발전은 서로 달라, 人口 百萬 이상의 민족은 蒙古 · 回 · 藏 · 維吾爾 · 苗 · 彝 · 壯 · 布依 · 朝鮮 · 滿 · 侗 · 瑤 · 白 · 土家 · 哈尼 등 15개 민족이며, 壯族이 인구가 제일 많아 1300

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가 10만 이상 100만이하는 哈薩克 · 傣 · 黎 · 僳 · 佤 · 畲 · 高山 · 拉祜 · 水 · 東鄉 · 納西 · 柯爾克孜 · 土 · 塔巴 · 羌 등 15개 민족, 인구 1만 이상에서 10만이하인 민족은 景頗 · 達斡爾 · 佬 · 布朗 · 撒拉 · 毛南 · 仡佬 · 錫伯 · 阿昌 · 塔吉克 · 怒 · 烏孜別克 · 裕固 · 京 · 鄂溫克 · 崩龍 · 普米 · 門巴 · 基諾 등 19개족이고, 인구 1만 이하인 민족은 保安 · 塔塔爾 · 獨龍 · 鄂倫春 · 赫哲 · 俄羅斯 등 6개 민족, 그중 제일 적은 민족인 俄羅斯 · 赫哲族은 약 2천여 명이다.

## 2. 少數民族 分布地域의 特徵

現在 中國의 少數民族은 모두 古代民族이 발전되어 형성된 것이며,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모두 각자의 淵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연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확실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민족도 있으나, 어떤 민족은 아직도 그 근원에 대한 정설이 없이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민족도 있다.

소수민족의 인구는 비록 적으나 그 분포지구는 오히려 전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은 臺灣에서 남쪽은 海南島, 서쪽은 新疆 · 西藏, 북쪽은 寧夏 · 內蒙古에까지 분포되어 있다. 新疆 · 雲南 · 四川 · 青海 · 西藏 · 廣西 · 貴州 및 內蒙古는 모두 소수민족이 많은 지방이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수민족이 漢族 居住地域이나 다른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雜居하거나 散居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분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동북지역, 북방지역과 서북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만 알아 보기로 한다.

滿族<sup>11)</sup>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遼寧省에 제일 많고, 다음으로 吉林 · 黑龍江 · 河北省과

10) [後漢書 · 東夷傳] 夷有九種曰 犬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故孔子欲居九夷也.

[通典 · 邊防典 · 東夷序略] 東夷有九種曰 犬夷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11) 中國少數民族의 한글 발음은 後術하는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概觀 및 特徵” 參照

北京과 內蒙古 등의 省·市·自治區에 많다. 朝鮮族은 吉林·遼寧·黑龍江省에, 赫哲族은 黑龍江省에 분포되어 있다. 蒙古族은 內蒙古自治區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遼寧·青海·甘肅·新疆·黑龍江省에, 達斡爾·鄂溫克·鄂倫春等族은 內蒙古自治區의 呼倫貝爾盟에 많이 살고 있다.

回族은 전국에 散居하지만, 寧夏·甘肅에 제일 많으며, 東鄉·裕固·保安族은 甘肅省에, 土·撒拉族은 青海省에 분포되어 있다. 維吾爾·哈薩克·柯爾克孜·錫伯·塔吉克·烏孜別克·俄羅斯·塔塔爾 등의 종족은 新疆 維吾爾族 自治區 境內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소수민족지구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소수민족의 居住 地域은 廣大하고 人口는 稀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新疆·서장·청해 등지는 평균 매 평방 미터당 인구 밀도가 적으므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제생산력이 발전될 수 없다. 따라서 대량의 인력을 中國 內地에서 동원하여, 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소수민족의 大多數가 邊疆地域에 몰려 있다. 東北의 압록강에서 시작하여, 黑龍江·內蒙古에 이르고, 西의 寧夏에서 新疆, 西南의 西藏·雲南, 南으로 廣西·海南島, 東은 臺灣에 이르기까지 邊防線上에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③ 소수민족 지역은 영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산천은 壯麗하고, 자연환경도 서로 각각 특색이 있다. 남방은 熱帶나 亞熱帶에서 시작하지만 北方은 高寒地帶이며, 高原·峽谷·盆地·海島 혹은 沙漠 등 서로 전혀 다른 기후조건에서 소수민족들이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역사상 많은 民族移動·屯田·移民 등의 原因으로 각 민족의 인구변동이 있었으며, 또한 각 소수민족 지구에는 모두 상당한 數의 漢族이 거주하며, 漢族居住地에 또한 일부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어, 각 민족분포는 각 민족들이 雜居와 叢居 등으로 교착거주하는 상

황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소수민족은 한 곳에 혹은 여러 곳에, 또는 크게 혹은 작게 叢居區를 이루고 있고, 약 일천만 인구의 소수민족은 전국각지에 散居하고 있다. 각 소수민족은 경제·정치·문화생활면에서 상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漢族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④ 소수민족지역에는 진귀한 歷史文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각 소수민족이 모두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나아가 漢族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동북·내몽고·신강·운남·서장·귀주·광서·광둥·대만 등 민족지구 모두는 중요한 고고발굴 장소이기도 하다.

⑤ 소수민족지역의 수 많은 名勝古蹟은, 관광사업에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다. 西藏의 珠穆朗瑪峰·布達拉宮, 雲南省의 石林과 布依族地區의 黃果樹瀑布, 臺灣의 阿里山과 風水秀麗한 日月潭, 內蒙古 大草原·新疆의 千佛洞·阿斯塔那墓群 등이 있고, 廣西 桂林이 있다.

⑥ 소수민족지역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 森林·草原·水力 등은 소수민족의 거주지에 많아, 풍부한 農·林·牧·漁業잠재력을 이용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IV.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概觀 및 特徵

### 1. 東北地域

#### 1) 滿州族 (Manchu)

滿族은 遼寧省을 중심으로, 吉林省·黑龍江省 등 三省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으며, 그외에도 河北省·新疆省·甘肅省·寧夏回族自治區, 山東省과 北京·成都·西安·廣州 등지에 나뉘어 살고 있다. 원래 滿語는 알타이어계통의 만주족 고유언어가 있으나 현재는 사멸되어 전하지 않고, 漢語가 통용되고 있다.

滿族의 起源은 紀元前 1000여년전 肅慎과 秦漢時代의 畝婁, 北魏時代의 勿吉, 隋唐時代의 靺鞨,

宋代의 女眞이었고, 현대의 滿族主體의 直系先祖는 明代의 女眞이었다.<sup>12)</sup> 1616년 누루하치가 女眞 각부를 통일하여 後金을 건립하였고, 1635년 皇太極은 그들 민족 명칭을 女眞에서 滿州로 개칭하고, 다음 해 後金을 淸으로 바꾸었다. 1644년 北京으로 도읍을 옮기고, 滿人을 首都에 옮겨 살게 하여, 漢人과 雜居하게 되었으며, 滿族은 薩滿教를 신봉하였다.<sup>13)</sup>

服飾에 있어 以前의 滿族 先人은 男女老少 모두 單(홀)이나 夾(겹)이나 혹은 毛皮(가죽)로 되어 있는 靑色의 袍服을 착용하였으며, 그 양식은 圓領에 右大襟<sup>14)</sup>扣絆<sup>15)</sup>에 窄袖이고, 左右 도련에 트임이 있었다. 袖口에 半圓形의 袖頭를 덧붙여 冬季에는 손등을 보호하기도 하고, 射箭에 편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예로부터 “箭袖”<sup>16)</sup> 혹은 “馬蹄袖”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騎射에 편리하도록 도련에 트임이 있는 袍服에 布帶를 매었다. 滿族은 모두 旗<sup>17)</sup>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입는 이와 같은 長袍를 旗袍<sup>18)</sup>라 칭한다.

袍服위에 馬褂<sup>19)</sup>를 입었다. 이것은 원래 淸代의 禮服이었으나 馬上에서 착용하는 外衣로 바뀌었다. 복식형태는 圓領, 對襟<sup>20)</sup>이며 扣絆이 있고, 작은 옆트임이 있으며, 對襟小棉 上衣인 便服과 비슷하였다. 袍服인 外套 위에 坎肩<sup>21)</sup>을 입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無袖의 短上衣로,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다. 滿族 男女老少는 이 坎肩을 즐겨 입었는데, 이것은 對襟에 재질은 綢緞으

로 만들었고, 가장자리의 緣裝飾인 花邊이 정교하면서도 미적 감각이 있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下衣로는 寬闊한 閉裆袴를 腰帶로 매어 착용하고, 바지가랑이도 腿帶(대넙)로 매었다. 겨울철 狩獵時에는 바지위에 가죽이나 솜을 넣은 套袴를 덧 입었는데, 특히 보온이 필요한 노인들의 선호하던 복식이었다. 夾, 棉, 皮등으로 만든 套袴는 裆(밑)과 腰(허리)가 없으며 단지 兩條의 袴腿가 상부는 삼각형이고, 상단에 끈이 달려 있어, 腰帶에 연결하여 착용하였다.

鞋는 滿族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으며, 각종 獸皮로 만들었고 나중에 여름에도 布鞋를 사용했는데, 漢族과 달리 滿族의 布鞋는 밑바닥이 두껍고, 繡雲紋이나 卷紋을 넣었다. 특히 婦女의 “高底鞋”는 바닥이 “馬蹄形” 혹은 “花盆形”의 두 종류가 있으며 재질은 나무이고 높이가 3寸이나 되었다.

남자는 항상 모자를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禮帽와 便帽가 있었다. 禮帽는 暖帽와 涼帽가 있으며 官吏들이 각각 겨울과 여름에 사용하였고, 便帽는 농촌에서 썼다. 동북지방의 남자들은 長筒靴를 즐겨 신는다. 과거에 남자들은 頭髮의 前半部를 밀고, 後半部에 머리를 남겨 놓는 형태의 변발을 했는데 이때 머리를 뒤로 늘어트리고, 혹색 小圓帽를 썼다.

既婚女는 머리 형식을 兩把頭로 처리하였는데 把頭髮이란 頭頂에서 묶어 좌우 두갈래로 나누고,

12) 趙 展, “滿族源流考”, [民族宗教歷史文化],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p.420.

13) [文獻通考] 四裔考, 女眞 “女眞, 蓋古肅慎氏 云云 後漢謂之曷婁.”

14) 大襟이란 交領을 말함. 즉 중국에서 漢族이나 일부 少數民族의 전통복식에서 앞도련이 겹치게 하는 것.

15) 단추나 매듭단추나 紐絆(고름)등의 매듭장치.

16) [啓禎記聞錄] “撫按有司申飭, 衣帽不能備營帽箭衣者, 許令黑帽緞以紅纓常服改爲箭袖”

17) 淸代, 滿洲蒙古의 行制區劃의 하나.

[皇朝通志, 地理略] “新藩蒙古喀爾喀四部八十二旗, 康熙三十年, 編蕃旗分定爲後部東部西部”.

18) 林新乃, [中華風俗大觀], (上海: 文藝出版社, 1991), p.183.

19) [亥餘叢考·馬褂] 凡扈從及出使 皆服短掛缺襟袍 及戰裙 短掛亦曰 馬褂 馬上所服也云云

20) 對襟이란 中國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立襟이라고도 하며, 上衣의 앞단이 垂直으로 내려오는 것. 즉 上衣 가슴 中央에서 여머지는 것.

21) 坎肩은 馬甲이라고도 하며, 소매없는 短上衣로, 서양복의 베스트와 같음.



頭頂은 髮鬚를 하고, 後面에 남은 鬚을 遍鬚로 하였다.

근세에 들어 滿族은 漢族과 융화되어, 습관은 이미 漢族化 되었으나, 특이하게도 그들의 대표적인 복식인 旗袍는 오늘에 이르러 漢族을 비롯한 기타 少數民族의 男女들까지 애호하는 복장이 되었다.<sup>22)</sup>

## 2) 錫伯族 (Sibo)

錫伯族의 先祖는 商周時代의 東胡系로, 遼河上流와 大興安嶺에서 黑龍江流域까지의 광대한 삼림지대가 활동지였으며, 오랜기간 동안 큰 부락을 결성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으며, 狩獵業, 牧畜業이 발달하였다.

烏杭은 본래 東胡의 중요 종족의 하나였는데, 前漢初에 東胡部落聯盟은 匈奴에 멸망당하였다. 이 烏杭은 錫伯族 先祖와 관련이 있다. [後漢書·烏杭傳]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수초를 따라 방목하며 일정한 거처가 없이 궁려로 집을 삼았다. (隨水草放牧, 居無常處, 以穹廬爲舍)’고 한다. 이 기록은 이들이 전형적인 유목민들이었음을 증명한다.

鮮卑 또한 東胡系의 중요 종족으로 錫伯族의 先祖가 된다. 이들은 春秋 戰國시대부터 北朝 이후,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鮮卑人은 씨족사회시대에 일종의 원시승배가 있어, 특정한 動物을 氏族의 보호신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바로 鮮卑라 칭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部族의 명칭으로 삼았다.

鮮卑人의 예술의 형식은, 金屬帶鉤에 숭배하는 瑞獸形象 도안을 넣어, 서로의 부락을 구별하였다. 이것이 바로 문헌에서 말하는 “鮮卑部落帶”이다. 戰國時代 이 帶鉤가 趙에 유입되어 武靈王이 黃金師比를 周紹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戰國

策]<sup>23)</sup>에 실려 있다. 鮮卑族은 386년부터 534년까지 北魏王朝를 건국하고 黃河流域을 통일하여 北方民族의 대융합을 추진하는 등 민족통일을 이루기도 하였다.

烏杭·鮮卑에서 유래하는 室韋는, 烏杭·鮮卑가 南遷 혹은 西遷한 후, 大興安嶺, 外興安嶺 내지 黑龍江유역에 살았던 종족이다. 北魏에서부터 시작하여, 南遷한 中原의 鮮卑人을 室韋<sup>24)</sup>라 칭했다. 또한 [隋書·室韋傳]에 의하면, 室韋는 5部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중 南室韋가 나중에 錫伯族이 되었다고 한다.

隋唐時代에, 半牧 半農의 經濟文化類型에 속하고 있던 南室韋는 牧畜을 爲主로 하고 여기에 農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겨울에는 城에 거주하고, 여름에는 水草를 찾아 다닌다”는 유목생활의 기록이 [魏書·室韋傳]에 기록되어 있다. 室韋의 부락은 많아, 통일된 부락을 형성하지 못하고 遼·金 兩代에 室韋部落群은 기본적으로 해체되어 明·清 兩代에는 南室韋만이 오늘의 錫伯族이 되었다.

男子의 服飾은 清代에 유행하던 靑·灰·棕色 등의 滿族 旗裝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騎馬등의 활동성을 위하여 양 옆에 트임이 있는 長袍·短襖·坎肩을 입고, 長袴는 腿帶와 腰帶를 매었고, 腰帶에는 보통 煙袋를 달았다. 신은 布靴였다. 머리에는 여름에 笠帽, 겨울에 氈帽 혹은 禮帽를 썼고, 官吏는 長袍위에 마패를 덧 입었다.

婦女子는 對襟 長袍에 花邊 장식을 하거나, 繡 놓은 旗袍를 입었다. 그리고 역시 對襟과 花邊 장식이 있는 坎肩을 입었다. 長袴를 黑色 腿帶로 매고, 白襪 繡花鞋를 신었다. 젊은 여자는 鮮艷한 색상의 두건을 썼으며, 老年 婦女子는 白頭巾(머리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冬季에는 가장자리를

22) 李德洙 主編, [中國少數民族文化史上], (沈陽: 遼寧出版社, 1994), 參照.

23) [戰國·趙策] “遂賜 周紹胡衣冠 貝帶 黃金師比 以傳王子也”

24) [北史·室韋傳] 室韋國在勿吉北千里 去洛陽六千里 室或爲失 藍契丹之類 其南者爲契丹 在北者 號爲失韋 此部在後魏時 始通中國 有南室韋 北室韋 鉢室韋 深末旦室韋 大室韋之五部

海豹皮로 두른 棉帽을 썼다. 未婚 婦女子는 머리를 한가닥으로 땅아 毛絲로 묶어 머리에 꽃을 꽂고, 金銀 귀걸이를 착용했다. 既婚 婦女子는 머리를 올렸다.

現代의 長袍 樣式은 무릎 밑으로 半尺 정도 내려오며, 袖口는 馬蹄形이고 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下半身에 長袴를 입고 春秋에는 夾으로, 겨울에는 솜을 넣은 套袴를 덧 입었다.

그러나 清末에서 民國初에 이르러, 錫伯族과 漢族은 經濟 文化방면에 상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服飾 또한 滿族의 旗袍를 입어 漢族과 비슷하게 되었고, 老年 婦女子는 長衣를 입는 습관이 계속되었다. 民國以後, 婦女子의 장식품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으나,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생활이 변하여, 현재는 다시 각종 장식품을 佩用하게 되었다. 男女 老少의 복장의 재질은 모두 향상되었고, 서양복, 가죽옷등의 新式의 의복을 즐겨 입게 되었다.

### 3) 赫哲族(Hoche)

赫哲族은 러시아의 遠東地域과 中國의 黑龍江省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松花江 中下流, 黑龍江 中下流와 우수리江의 中下流 沿岸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의 러시아 境內的 赫哲族은 기타 遠東의 少數民族과 같고, 그들은 滿-통그스語族이며, 현재는 中國의 東北의 滿-통그스語族 소수민족과 같다.

赫哲族과 東北 古代 黑水靺鞨, 野人女眞등과의 관계는 [淸經祖實錄] 및 [皇淸職貢圖]에 처음으로 보인다. 赫哲族은 고기잡이가 생계 유지의 주요 수단이며, 狩獵을 보조로 하는 민족으로, 魚皮衣服<sup>25)</sup>을 입는다고 하여 “魚皮部”, 犬를 생활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여 “使犬部”라고 史書에서 전하

고 있다.<sup>26)</sup>

이와 같이 服飾 主材料는 魚皮였으며, 狗皮와 鹿皮등의 獸皮로 장식을 가하였다.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혁철족의 복식은 “남자는 樺皮로 모자를 만들고, 겨울에는 貂帽와 狐裘를 착용했다. 부녀자 의복은 魚皮에다 色布로 緣을 두르고, 가장 자리는 銅鈴을 매어 달아, 鎧甲과 비슷했다”<sup>27)</sup>고 설명되어 있다. 송화강 중하류의 혁철족은 魚皮와 獸皮를 兼用했으나 少數의 上層人은 棉布와 綢緞을 사용하였고, 흑룡강과 烏蘇里江 유역의 赫哲族의 의복 재료는 魚皮가 일반적이었다.

婦女子의 복식 재료도 魚皮를 사용하고 그위에 각종 무늬로 염색했다. 남녀 魚皮 服裝의 도련, 袖口, 깃에 식물염료나 色布를 사용하여 雲紋圖案을 장식하였다. 婦女子의 魚皮 長衣는 滿族의 旗袍와 비슷하여 옷길이는 무릎을 지나고, 허리는 조이는 형태이며, 밑으로 갈수록 넓었으나 몸의 곡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매는 넓고 짧았으며, 도련은 各色紐로 장식하고 雲紋 도안으로 繡를 놓았다. 그리고 의복의 도련에 貝殼, 銅錢, 五色珠, 小琉璃球 등의 장식물을 달아, 걸음을 걸을 때 소리가 나며 아름다웠다.

겨울 狩獵時에 狗皮 외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는데, 이 복식의 형태는 옷길이가 무릎을 지나고, 의복의 여밈은 獸骨과 木頭와 가죽끈을 이용하였으나, 후에는 銅 단추를 사용했다. 남녀 魚皮 套袴를 입었으며, 男子의 것은 上面이 傾斜졌으나 女子 套袴는 水平이다. 淸代에는 皮와 布를 겸용하게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外袴는 皮를, 內袴에는 布를 사용했다. 최근에는 棉織物이 魚皮나 獸皮에 대신하게 되었다.

남자의 신에 短靴와 靴子가 있었다. 短靴는 靴鞬이라 불리우고, 鹿皮·野豬皮·熊皮와 魚皮로

25) 林新乃編, 앞책(1991), p.181.

26) [皇朝文獻通考·輿地考·盛京] 自寧古塔 東七百餘里 外沿松花江 大烏拉江 直至海處兩岸 爲赫 哲費雅哈部 所居 其俗 不知 耕種 以捕魚爲生 其來往行獵 并皆以 犬 卽所謂使犬部也

27) [皇淸職貢圖]卷三

만들며, 靴子는 鹿·狗·駝鹿의 腿皮로 만들었다. 婦女子의 鞋는, 과거 滿族式의 厚底鞋에 雲紋을 수놓은 龍舟形이었다. 모자는 夏皮通帽·狗頭皮帽·樺皮帽 등의 3종류가 있다.

#### 4) 鄂溫克族(Owenke)

鄂溫克族의 先祖는 일찌기 바이칼湖 周圍 및 東北地域에서부터, 黑龍江 以北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狩獵과 漁業 文化를 발전시켜왔다. 紀元前 2千年 前後, 金石 병용시대에 鄂溫克族의 先祖는 바이칼湖 周圍에 거주하다가 東遷 後에 일부는 黑龍江 中流, 精奇里江,<sup>28)</sup> 外興安嶺 南北에 거주하게 되었다. 史書에 의하면 古代에 室韋와 鄂溫克族은 그 根源에 있어 관계가 있다고 한다.<sup>29)</sup> 北魏時代에 室韋는 5부로 나뉘게 되는데, 그들은 蒙古·契丹·柔然·索倫·高車 등 다른 씨족의 부락어였다. 室韋와 鄂族이 관계가 있는 것은 北室韋·鉢室韋·深末旦室韋 등 3부족이었다.

南北朝와 隋代에 이르기까지, 鄂溫克族과 관계 있는 室韋는 中原 왕조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으며, 隋代에 室韋는 5부로 나뉘고, 唐代에 거주지역에 변동이 있었고, 室韋는 9부로 나뉘었고, 이중에 蒙兀室韋가 蒙古의 선조가 되었고, 그 나머지의 다수가 鄂溫克族의 선조가 되었다. [舊唐書]에 의하면 그들은 東은 黑水靺鞨, 西는 突厥, 南은 契丹, 北은 于海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唐朝廷은 室韋地區에 室韋都督部를 설치하여 이 지구의

백성을 統轄하였다.

宋代의 室韋는 契丹人의 遼朝의 통치를 받았으며, 遼朝는 여기에 室韋節度使를 두고 서북지구를 다스렸다. 金朝에 鄂溫克族은 外興安嶺, 黑龍江上, 中流에 있으면서 女真族의 통치를 받았다. 그 후에는 13세기 蒙古人이 北方에서 꺾기하여 元帝國을 건립하고, 行省制<sup>30)</sup>를 설립하여 이 지역을 관할하였다.

鄂溫克族은 狩獵民族임으로 獸皮服을 입었다. 史書에 그들은 ‘사냥을 주로하며 고기를 먹고 가죽을 입는다. (射獵爲務, 食肉衣皮)’이라고 했으며 혹은 짐승 가죽을 입으며 여름과 가을에는 魚皮로 衣服을 만든다<sup>31)</sup>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개의 머리로 모자를 만들었는데 두귀가 쫘긋하고 개가죽 옷을 입었으며 누런 모자로 귀를 덮었다. (以狗頭爲帽, 雙耳挺然, 披狗服, 黃帽蒙耳)’라는 기록도 狩獵民族 服飾文化의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다. 清代 中葉以後, 衣服의 變化도 있어, 婦女子는 布衣와 八旗<sup>32)</sup>坎肩<sup>33)</sup>을 입기 시작하였다. 衣服은 滿族 양식을 모방하여, 寬袖이며, 花邊 장식이 있었고, 絲綢煙 口袋를 품고 다녔다. 남자도 布衣를 입고 2寸 정도의 넓은 緣飾을 하고 있었다. 몸 前面에는 錢搭子<sup>34)</sup>를 띠고, 양측에는 刀와 火石袋을 달았다. 老年은 八旗式 坎肩을 입고, 狗皮衣를 입었다.

유목민 의복의 특징은 肥大하고, 斜對襟<sup>35)</sup>이며 長腰帶를 사용하여 기마에 편리하게 한 것이다.

28) 外興安嶺에 근원을 두고 있는 黑龍江 북쪽에 있는 江으로, 黑龍江으로 합류함

29) [北史·室韋傳] 室韋國在勿吉北千里 云云 後魏時 始通中國 有南室韋 北室韋 鉢室韋 深末旦室 韋大室韋之五部

30) 元代, 中書省을 政府로 하고, 地方에 行中書省을 두어 行省이라 칭함  
[元史·百官志七] 初有征伐之役 分任軍民之事 稱構行省

31) [黑龍江外記]

32) 八旗兵의 略稱. 淸 太祖時에 정한 兵制. 淸朝 創業에 功臣의 子孫으로 조직한 兵. 滿洲人으로 구성된 것을 滿軍八旗, 蒙古人으로 구성된 것을 蒙軍八旗, 漢人으로 구성된 것을 漢軍八旗라고 칭하여 합계 24旗. [淸會典·八旗都統] 참조

33) 滿族 服飾 參照

34) 돈지갑을 말함

35) 對襟. [日知錄·雜事·對襟衣] 太祖寶錄 洪武 二十六年 三月 禁官民步卒人等服 對襟衣 惟騎馬 許服 以便於乘馬故也 其不應服而服者 罪之 今之甲 對襟衣也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長厚毛皮로, 춘추에는 小毛皮로 의복을 만든다. 일반인은 藍色이나 黑色의 衣服을 선호하고, 紅色과 黃色 衣服을 입지 않았다. 白色은 內衣로만 착용하였다. 民國 성립 이후, 布衣(織物衣服)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皮衣는 단지 방한용으로만 사용했다.

이의 皮袴·皮套袴·皮靴등이 있었고, 남녀 모두 頭巾·皮帽가 있었으며, 남자는 백색, 여자는 藍·靑·白·綠色 등의 頭巾을, 冬季에는 皮帽를 사용했다. 남자모는 圓錐形으로, 頂에는 紅纓穗가 있으며, 帽面에는 藍색 혹은 天藍色布로 봉제했고, 帽耳는 獸皮로 제작했다.

狩獵民族의 생활용품은 대개 獸皮로 만든 것으로, 冬季에 罕(駝鹿)皮 上衣와 袴를 착용했고, 수렵이나 보온용으로 套袴를 입었다. 棉布가 전해진 후에, 부녀들은 布料로서 裙, 大圓領袍를 입었다. 狩獵民族의 모자는 특히 狩獵時 偽裝에 필수적임으로, 각종 獸皮나 짐승 모양을 그대로 보이는 등 獵物을 誘惑하는 考案을 하였다.

현대 牧畜地區와 狩獵地區 청년의 복장은 漢族 服裝과 同一하여, 單衣·棉衣·皮衣, 羽絨服등을 입으며, 특수한 경우에만 민족복장을 입는다.

### 5) 鄂倫春族(Olunchun)

鄂倫春族은 內蒙古 自治區의 鄂倫春族 自治旗 및 布特哈旗, 阿榮旗와 莫力達瓦達斡爾族 自治旗, 黑龍江省의 塔河·呼瑪·黑河·遜克·嘉蔭 等地에 분포되어 있다.

鄂倫春族의 起源은 [北史·室韋傳]에 의하면, 南北朝시대의 靺鞨 部의 狹狹狹에 종족적 연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元代, 靺鞨 部 중류지역의 각민족을 총칭하여 “林木中百姓”이라고 했다. 이것은 內外興安嶺의 광대한 지대의 遊獵민족으로 그 중 鄂倫春族도 포함되어 있었다. [元史·地理志]에 이들 종족이 ‘토지는 광활한데 사람들은 흩어져 살며, 시장과 성곽이 없이 水草를 따라 거처를 마련하고 사냥을 업으로 삼았다. (土地曠闊, 人民散居, 無市井城郭, 逐水草爲居, 以射獵爲

業)’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이 지역 종족들의 생활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鄂倫春族도 이와 동일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明代 이후, 靺鞨강 유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상황이 일층 명백해졌는데 [大明統志]에 靺鞨강 以北의 어느 種族은 ‘사슴을 타고 출입하는 북산의 야인(乘鹿以出入, 北山野人)’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清代 기록의 “樹中人”과 民國 설립초에 “林木中百姓”, “樹中人”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그들이 山林 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깊은 山林 속에서 狩獵을 위주로 함으로 皮衣를 입고 肉食을 하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오랜동안의 수렵 생활중에서도 독특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

정착생활 以前의 鄂倫春族은 狩獵·漁獵·採集 등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衣生活 역시 狩獵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衣袴·鞋帽·被褥 및 장갑 등은 獸皮로 만들었다. 獸皮衣料 중에는 狗皮가 가장 많고, 그 외에 鹿皮와 罕皮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다른 皮衣를 착용하며, 皮衣의 제작방법 또한 같지 않다.

冬季에 남녀노소가 입는 皮袍는 털이 길고 촘촘한 狗皮로 만들었는데 형태는 右大襟이고, 袖口와 襟주위, 도련에 모두 黑色薄皮雲紋으로 장식했으나, 각종 獸皮로 깃을 들렀다. 남자의 皮袍는 길이가 무릎에 이르고, 騎馬에 편리하게 전후에 트임이 있었다. 여자의 皮袍는 비교적 길어 무릎을 지나며 좌우가 트여있고, 수구와 트임주위와 도련등에 花草와 花紋등으로 수놓거나 가장자리에 장식을 하였다. 獸骨과 단단한 木刻으로 단추를 만들었으며, 皮袍에 남자는 皮帶를, 여자는 黃, 紫, 藍色 등의 布腰帶를 하고 老婦女子는 素色 布腰帶를 착용했다.

남자의 皮袴는 狗皮와 鹿皮로 만들며, 短袴와 長袴가 있었다. 短袴는 길이가 무릎에 이르고 그 길으로 套袴를 착용하였고, 狩獵시에는 長袴 위에 套袴를 덧입어 袴腿를 보호하였다. 婦女子의 袴는

비교적 길고 좁았으며 바지 가랑이 주위에 雲紋으로 장식했다.

鄂倫春族의 狩獵帽은 狩獵民族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狗頭帽”라고 불리는 이 모자는 狗頭皮를 벗겨서 원상태로 만든 것으로, 수렵시에 최고의 위장용 도구로 사용되었다. 婦女子도 皮毛와 氈帽을 즐겨 쓰고, 帽頂에는 貂尾로 장식했다. 夏節에는 남자의 경우 布制 尖頂帽을 쓰고, 모자의 뒷부분을 양 어깨와 뒷면으로 늘어뜨려, 머리와 뒷목을 가림으로써, 햇볕이나 해충을 막았다. 婦女는 하절에 모자를 쓰지 않고, 노부녀자는 毛巾이나 布로 머리를 덮었다. 일반 婦女子는 각양 각색의 보석을 줄에 꿰어 머리에 매달았다.

鞋와 襪 등도 獸皮로 만들어 酷寒의 野外에서도 발이 얼지 않도록 했다. 皮袍는 冬季에 수렵한 狗皮로 만들고, 狗皮로 된 手套(장갑)는 아름답게 수를 놓았고, 손목 가장자리는 灰鼠皮로 장식했다. 손목이 긴 장갑은 衣袖를 덮었을 정도이며, 皮繩으로 묶었는데, 손바닥과 손목에 開口가 있어 노동시에 손을 내놓을 수 있어 편리하였다.

近年에 鄂倫春族도 夏節에 布制 衣服을 입게 되어 布腰帶를 한 長衫을 입는다. 그러나 동절과 수렵시에는 여전히 獸皮 의복을 입는데, 綢緞을 입기도 한다.

## 6) 蒙古族(Mongolia)

蒙古族의 先祖를 匈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匈奴와 동일시기인 烏桓·鮮卑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史記·匈奴傳]의 ‘索隱’에서 설명하기를, 당시 東胡가 거주하던 지역을

“在匈奴東，故曰東胡”라고 하고, 3세기 말 東胡가 匈奴單于를 피하여<sup>36)</sup> 烏桓山<sup>37)</sup>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烏桓이라 했다고 하고,<sup>38)</sup> 다른 一族은 鮮卑山<sup>39)</sup>에 거주하게 됨으로 鮮卑라 칭하게 되었으며 이 두 부족은 그 습속이 동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後漢時代에 烏桓은 대거로 塞內<sup>40)</sup>로 이주하여 漢民族과 융합하였다. 鮮卑人은 北匈奴의 敗走시기를 타고 지금의 內蒙古 東部 匈奴故地, 즉 大漠南北으로 이주하면서 匈奴와 융합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鮮卑族은 그후 中國 북방을 통일하여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魏書]에 의하면<sup>41)</sup> 室韋와 契丹 역시 烏桓·鮮卑의 後裔이다. 언어학과 고고학의 연구를 통해서도 동호에서부터 契丹 室韋에 이르는 것이 한 계통의 민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東胡系 烏桓, 鮮卑가 室韋諸部에 미쳐 蒙古人의 직접 선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唐書]의 “蒙兀室韋”가 바로 後代의 蒙古部이고, [後漢書·烏桓鮮卑列傳]<sup>42)</sup>에 烏桓人의 종교와 신앙은 자연과 조상숭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 몽고의 전통신앙과 유사하다는 것도 이들이 종족적으로 동일계통의 종족임이 드러난다.

이상으로 보면 東胡系와 蒙古는 同族이거나 근친간이어서 蒙古文化와 東胡後裔인 烏桓·鮮卑諸族文化는 영향의 授受 혹은 繼承의 관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蒙古族의 衣服은 그들의 자연환경이나 수렵생활과 관계가 있음을 물론, 古代 북방민족의 服飾文化에 영향을 받았다. 13세기 以前에 蒙古族은 이미 民族과 地域의 특색을 갖는 의복이 형성되어, 당시 蒙古의 服飾이 南宋의 使臣들에 의해서

36) [漢書·匈奴傳上] 即後匈奴 遂擊 烏桓

37) 지금의 內蒙古 阿魯科爾沁의 西北에 있는 烏桓山

38) [後漢書·烏桓傳] 烏桓 本東胡也 漢初 匈奴冒屯滅其國 餘類保 烏桓山 因以爲 號焉

39) 지금의 內蒙古 科爾沁 右翼의 西

40) 東北方의 國境

41) [魏書] 권100 室韋語與庫莫奚 契丹 豆莫類國同

42) 敬鬼神 祠天地日月星辰山川及先大人有健者

전해지기도 했다.<sup>43)</sup> 몽고족의 복식을 대략 살펴보면, 겨울에는 모자를 쓰고 여름에는 샷갓을 썼으며 특히 부인들은 故姑를 썼다. 복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右襟이며 가죽 혹은 苧絲로 만들고, 紅·紫·紺·綠의 색상이 선호되었으며 龍이나 鳳의 무늬가 수놓아졌다. 그리고, 고대 몽고족 복식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복식에 있어 귀천의 차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故姑는 또한 顧姑冠<sup>44)</sup>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몽고족의 특수한 모자가 되었다. 13세기 중엽 몽고에 온 서방 선교사 칼핀은 몽고인 복장을 말하면서 여자들이 고고관을 썼다고 증언하였으며, 元定宗의 即位大典時 몽고의 廷臣들은 매일 一色衣로 갈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元史에서 말하는 質孫衣이다.

明代 蒙古族 衣服은 袍·袴·無袖短衣·布襯衫·靴·帽·圍腰 등이다. 蒙古袍는 羊皮, 羔皮등의 獸皮와 각종 綢緞으로 만들고 이때부터 사회적 지위나 빈부의 차에 따라 복식에 차별이 있었다. 남녀 모두 기마에 편리하도록 바닥이 얇은 靴를 신었고, 상층 부녀자는 전통적인 고고모를 착용하였다.

清代 蒙古族 服飾은 滿族의 영향을 받아, 長袍와 馬褂를 입었다. 前面은 對襟에 對稱으로 매듭 단추가 있었고, 보통 몽고족이 입은 長袍는 모양이 元朝時代의 복장과 대개 같으며, 귀족들은 주단을, 庶民은 棉布등을 사용했다. 그리고 紅色이나 綠色의 腰帶와, 모자는 皮帽, 氈帽가 있었다. 婦女子는 結髮할 때 高髻로 올리고, 未婚女는 두 가닥으로 길게 땅아 앞가슴으로 늘어뜨렸다. 남녀는 皮나 布로 만든 靴가 있고, 겨울에는 남녀 모두 羊皮短衣를 입는다. 半農 半牧지역과 農業지역에서의 몽고인 복장은 변화가 있어 농작에 편리하도록

발전하고 있다.

현대는 남녀 모두 雲紋圖案의 滾邊<sup>45)</sup>長袍에 우입이며, 폭이 넓은 紅色, 黃색 혹은 綠色의 綢緞腰帶를 한다. 男子는 裝飾과 實用을 겸한 精美한 小刀를 佩用했으며, 冬節에는 羊皮로 안을 넣은 長袍와 皮袴와 皮靴를 신고, 靴속에는 氈襪을 신었으며, 夏節에는 夾袍와 布袴와 皮靴를 신는다. 남자는 藍色, 黑色 혹은 褐色의 帽子나 綢緞의 頭巾을 쓰고, 여자는 紅色, 藍色 綢緞의 頭巾을 쓰며, 冬節에는 圓錐形 모자를 쓴다.

### 7) 達斡爾族(Tahur)

達斡爾族은 古代 契丹에서 유래한다. 즉 契丹은 중국 東北의 古代民族으로 10세기 이전에는 遊牧生活을 하고 있었으며, 黑龍江·吉林·遼寧·河北·河南省 北部·山西省 및 內蒙古와 外蒙古地區에 걸쳐 있다.

1125년 遼가 망하고, 契丹人의 일부가 징기스칸에 투항하여 東遼王에 예속되었고, 다른 일부는 중앙아시아로 이동하여 西遼정권을 건립하였으나, 이들은 점차 타민족과 융합되어갔다. 元明시대에 大興安嶺 西北部 額爾古納河 流域으로 이동하였으며, 지금의 흑룡강 중류지역으로 오늘의 達斡爾族이 되었다.

내몽고 阿魯科爾沁旗水泉溝의 遼代壁畫을 보면, 古代 契丹人이 圓領長袍에 幘頭, 腰帶, 短靴등을 착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契丹人의 고유복식은 長袍·束帶·短靴·幘頭인 것으로 이것이 達斡爾族의 기본 특징이다.<sup>46)</sup>

淸初에서 民國에 이르기까지, 達斡爾族의 복식은 민족특징 외에 재질이나 양식에 변화가 있었다. 일찌기 흑룡강 북부에 定居하면서, 服裝은 가죽(皮)을 위주로 하였고, 內袴와 內衫만은 布를

43) 彭大雅는 “其冠被髮而椎髻, 冬帽而夏笠. 婦人頂 故姑. 其服右壬而 方領 舊以氈毛 革 新以絨 絲金線 色以紅紫紺綠 紋以龍鳳 无貴賤等差”이라고 [黑達事略]에서 소개하고 있다.

44) [輟耕錄] 元代的 冠으로 鐵의 針金을 엮고, 錦繡珠玉으로 장식함

45) 衣服의 가장자리에 刺繡나 織成으로 장식을 가하는 것

46) 黃吉連, “契丹族在俄國歷史上的貢獻”, [民族宗教歷史文化],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p.45 참조.

사용하였다. 山林地域인 嫩江유역으로 이주한 후 부터는 방직업과 상업이 낙후하여 포를 입는 경우가 드물게 되어, 남성들은 일년 내내 皮袴를 입었다. 民國 년간에 남방의 물자가 북측에 이르러 布匹이 많아져, 皮衣가 감소하고 富者들은 綢緞을 입었다.

男子는 春秋에 무릎에 이르는 袍를 입었고, 狗皮로 만든 單衣도 입었다. 冬季에는 겨울에 잡인 狗皮로 皮大衣를 만들어 입었다. 騎馬에 편리하도록 의복 도련의 前後가 트여있었고, 狩獵시에는 털을 바깥으로 향하게 착용하여, 野獸를 誘惑하는 僞裝으로 삼기도 하고, 狗皮袍 外部에 鹿皮나 羴皮로 된 皮掛나 皮裙을 덧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狗皮袴를 입고, 이 안에 布로 된 內袴를 입는다. 皮袴 外部에 입는 皮套袴는 上端에 끈으로 腰帶에 매었다.

모자는 狗皮로 만들어 狗頭皮帽는 털을 외면으로 하고, 양귀와 뺨을 새우고, 黑布로 눈을 만들어 수렴시 위장으로 삼았다.

布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婦女子도 男子와 같이 皮衣를 입었으나, 이후에는 布衣나 綢緞을 입었다. 상의는 長袍와 外套 및 坎肩을 착용하고, 연령에 따라 색이 달라 藍色이 많았고, 젊은 여성은 주로 鴨蛋靑·淺藍·天藍色을 입었다. 나이가 많음에 따라 색상도 점점 진해져, 50 이후에는 흑색, 深藍色을 주로 입었다. 長袍는 깃·소맷부리·도련 주위에 아름다운 도안으로 수놓았다. 젊은 부녀는 자수 놓은 平頂圓帽를 쓰고, 동계에는 외면이 毛皮인 平頂圓帽를 쓴다. 집안에서나, 작업

시에는 白布頭巾을 쓴다.

## 2. 西北地域

### 1) 回族(Hui)

回族은 중국 소수민족중 인구가 제 3위이며, 寧夏 回族自治區·甘肅·青海·新疆 및 河南·河北·山東·雲南 등 전국적으로 散居해 있다.

回族的 起源은 紀元 7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어, 唐 高宗시대에 아랍, 혹은 페르시아의 이슬람 교도로서 商業次 중국에 건너왔는데, 당시에 그들을 胡客<sup>47)</sup>·蕃客<sup>48)</sup>으로 불리웠다. 이들은 五代에서 宋代에 이르는 시기에 많은 변화를 보여, 南宋시대에 이르러 廣州를 비롯한 중요한 城市에 거주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散居하여, 그들 특유의 公共墓地나 寺院을 건립하게 되었다.

또한 13세기 初에도, 징기스칸의 西征時 압박을 받아 東西 交易路를 거쳐 중국에 넘어 온 중앙아시아 민족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元代에 “回回”라 칭하여졌으며, 당시 “色目”<sup>49)</sup>의 일종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軍士나 農民이나 工匠들이었고, 일부는 관리 혹은 經商業이나 宗教從事者들이다. 이들은 結婚이나 사회경제 관계를 통하여, 漢人·畏兀兒·蒙古人 등과 이슬람교 紐帶를 맺어 새로운 新民 종족인 回回族이 되었다.

回族的 服飾은 매우 간단하고 소박하며, 중국 內地에 거주하는 回族은 漢族과 대체로 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西北地域의 回族服飾은 그

47) [賈子新書·匈奴] 令 此時大具召胡客 饗胡使

48) [唐書·百官志一] 職方郎中 云云 凡蕃客至鴻臚 訊其國山川風土 爲圖奏之  
[唐書·食貨志四] 燕蕃客 不御酒

49) 元代, 欽察 唐古等 西域諸國의 人種의 總稱. 元朝의 支配者와 同種인 蒙古人과 被征服者인 漢人과의 中間에 위치하여, 때로는 爲政者와 結託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元史·百官志一] 至元二十五年 始置都提舉一員 正四品 云云, 丙以色目二人參之.

[元史·選舉志一. 科目] 蒙古色目人作 一榜 漢人南人作 一榜

[輟耕錄·氏族] 色目三十一種 吟刺魯 欽察 唐兀 阿速 忝八 康里 苦里魯 刺乞 赤乞 畏吾兀 回回 乃蠻.

[六部成語·戶部·外蕃色目人等·注解] 色目 名目也 言係外蕃有名目之種 而非中土民人之族類也

독특한 풍격을 지니고 있어 남자는 白色이나 黑色의 無沿頂帽<sup>50)</sup>를 쓰거나, 白布나 白毛頭巾을 사용하여 “纏頭回回”<sup>51)</sup>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였었다. 敎派에 따라, 角回回帽가 있는데, 五角帽·六角帽·八角帽 등이 있다. 西北 지방의 回族 남자는 白色對襟上衣와 黑色對襟坎肩을 두르고, 婦女子는 蓋頭를 쓰는데, 나이와 결혼여부에 따라 색상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소녀와 젊은 부녀자는 綠色을, 중년 婦女子는 靑色이나 黑色의 蓋頭를, 노년 부녀자는 白色 蓋頭를 쓴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面紗를 더 쓰는 지방도 있다. 그러나 邊疆지방에 거주하는 回族은, 당지의 多民族의 복장을 착용하여, 新疆에 거주하는 回族은 維吾爾族, 哈薩克族 복장을 하고, 西藏에 거주하는 회족은 藏族복장을 한다. 雲南에서는 白族·彝族·傣族 복장을 하기도 하고, 貴州에서 苗族복장을 하기도 하여 回族의 놀라운 적응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東鄉族(Tunghsiang)

지금의 甘肅 臨夏地域을 東鄉이라 하는데, 이 지역명을 민족명에 부친 것이 바로 東鄉族이다. 東鄉族은 [蒙古秘史]나 기타 사서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일대의 모스람, 즉 回回人이 1220년대 징기스칸의 중앙아시아 정복 때, 전쟁으로 解體되어 蒙古軍으로 편입하였거나, 東鄉地域區에 이주한 回回 色目人을 주체로, 일부분의 蒙古人과 融合하여 이루어진 민족이다.

東鄉族의 服飾은 回族과 비슷하여, 靑藍布나 藏靑色布로 만든 對襟右衽의 短衣에, 對襟 布坎肩을 입고 下衣는 長袴를 입었는데, 동계에는 棉短衣와

棉袴를 입는다. 그리고 羊皮短衣와 黑色의 夾帽나 白色의 絨帽 平頂軟帽을 쓴다.

婦女子는 長衣의 袖口를 花邊으로 장식하고, 坎肩을 입었다. 그리고 長袴와 圓形帽子는 주름천으로 장식하고 彩色絲線으로 술을 달았다. 부녀자는 실내에서도 허리까지 내려오는 “蓋頭”를 하여 婚姻 前에는 綠色蓋頭를, 結婚 後에는 黑色蓋頭를, 老年에 白色蓋頭를 쓴다. 그리고, 黑白 毛織布로 만든 襪과 藍黑色 布鞋를 신는다.

## 3) 土族(Tu)

土族의 根源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吐谷渾說이 유력하다. 吐谷渾은 고대 중국의 서북지방에 있던 민족인데, 慕容鮮卑의 별개의 支流로, 일찌기 遼東 일대에서 遊牧하던 민족이다. 紀元 4세기 西晉시기에, 慕容鮮卑에서 분리되어, 陰山방면에서 西遷하여 放牧하면서 塞外<sup>52)</sup> 隴山<sup>53)</sup>을 거쳐 甘肅·靑海地域에 329년 吐谷渾을 건립하였는데, 그 통치구역은 羌·氐·匈奴등과 漢族이 살던 지역이 포함된 적도 있었다.

6세기 초에는 그 세력이 強盛하여 타림분지의 南邊에 달하였고, 7세기 초, 隋가 천하를 통일 할 때 吐谷渾은 국세가 크게 떨쳤으나, 663년에 吐蕃<sup>54)</sup>에 투항한 후 이 종족은 사망으로 분산되었다.<sup>55)</sup> 吐谷渾 亡國 後 3세기 동안, 일부는 藏族과 융합되고, 일부는 東遷하여 漢·契丹·室韋 등 민족에 융합하고, 原住地에 거주하던 일부는 河湟유역 일대에 모여, 土族형성의 주요 근원이 되었다. 唐宋을 거쳐 이들은 土族 先民인 吐谷渾의 後裔가 되어, 藏·漢等 주변 종족들과 잡거하게 되었다.

50) 양테가 없는 圓形 小帽

51) 回教人이 白布로 머리를 감싸는 것.

52) 長城의 外部, 변방지방

53) 陝西省 隴縣에 있는 산 이름

54) [唐書·吐蕃傳] 吐蕃本西羌屬 蓋百有五十種 散處河湟江岷間 有發羌唐모等 然未始與中國通居析 支水西 祖曰 崑提勃悉野 健武多智 稍并諸羌據其地 蕃 發聲近 故其子孫曰吐蕃

55) [通典·邊防典] 吐谷渾 本遼東鮮卑也 西晉時 酋帥徙河涉歸有二子 長曰 吐谷渾 云云 屬永嘉之亂 始度隴西 至於枸罕 而後子孫據有甘松之南 洮水之西 南極於白蘭 在益州西北 云云 至其孫葉延 云云 以 吐谷渾 爲氏



土族服飾은 民族特色이 농후하여, 특히 河湟地域의 衣服과 머리장식이 사람의 눈을 끈다. 남자는 氈毛에 斜襟長袍를, 혹은 繡花高領白色短掛와 對襟의 黑色 혹은 紫色의 坎肩을, 下衣로는 黑色 혹은 藍色의 大裆袴 및 繡花長腰帶 등을 착용한다.<sup>56)</sup>

婦女子 服飾은 복잡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大通縣志] 중에 土族 婦女의 衣服은 五彩의 綢布로 만들고, 大帶로 맨다는 기록이 있어, 오늘날까지 착용되는 土族 婦女의 기본 복식을 표현하고 있다. 互助, 大通, 樂都 일대의 土族 婦女는 帽子테가 위로 올라가고 가장자리를 장식한 氈帽에 小領斜襟長袍를, 소매는 黃·黑·藍·綠·紅 등의 五色 색동으로 처리하였으며, 上身은 黑色이나 紫紅色의 坎肩을 입었고, 넓고 긴 彩帶 양끝은 花·蜂·蝶·鳥·彩雲 등의 美麗한 도안으로 수놓았다. 그러나 老婦女는 刺繡도 하지 않았고, 彩帶도 사용하지 않았다. 어떤 土族 婦女는 緋紅色의 百褶裙에 무릎 밑으로 黑色이나 藍色 혹은 紅色의 套袴를 하였다.

民和나 三川지구의 토족 부녀 上衣는 紅·綠色이며, 下衣는 紅·紫·黑 三色同의 裙을 입었다. 同仁지구의 土族 부녀는 무릎에 오는 우입 長袍에, 花色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團領長袍는 양옆으로 트임이 있었다.

既婚 婦女子는 두가닥으로 머리를 땀아, 끝을 등뒤에서 연결하고, 未婚는 귀밑 머리를 땀고, 뒷머리는 한가닥으로 땀아 등뒤에서 세가닥을 합친 후, 紅色 頭繩(댕기)으로 매어 장식했다. 그리고 머리에 金花·貝殼·珊瑚·松石 등으로 아름답게 꾸몄다.<sup>57)</sup> 근년에도 토족 부녀는 腦後로 높이 머리를 올리고 각종 傳統 裝飾物을 달았으나, 최근에는 복식을 개혁하여, 부녀자의 傳統頭飾이 금지되었다. 점차 토족지구에도 정치·경제면의 변화와 사회생활 진보에 따라 토족복식도 개편되어, 翅尖

繡花鞋도 점차 소실되고, 大裆袴 대신 서양 바지가 대신하게 되었다.

#### 4) 保安族(Paoan)

保安族의 主要 居住地는 甘肅省 積石山의 保安族·東鄉族·薩拉族 自治縣의 大河家鄉, 劉集鄉 일대며, 共和國 成立 後 族名이 地名에 따라 保安族이라고 부여되었다.

保安族의 先鄉은 원래 青海省 同仁縣 地區였는데, 이곳은 漢·唐이래 多民族 雜居地域이어서, 西羌·吐谷渾·吐蕃·黨項·女眞 등 많은 古代 民族이 활약하고 거주하던 지역이다. 1227년 징기스칸이 西夏에 進軍하여 積石州를 점령한 후 同仁 또한 蒙古軍의 주둔지가 되었다. 이곳은 新疆이나 西藏으로 가는 交通의 요지였으므로 明代 이후 邊방을 지키기 위하여 軍屯병을 파견하고, 萬曆년간에 保安城堡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이곳은 貿易商의 往來, 駐屯兵, 民間人 등이 옮겨 살아 同仁(隆務鎮)부근은 점차 藏·漢·蒙古·回·土·薩拉 등 多民族이 대거 잡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保安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蒙古족을 위주로 하여 위에서 말한 여러 민족들이 융합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保安族의 주체가 蒙古족이었고, 또한 蒙古족이 이웃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기본복식은 서로 비슷하다. 남녀 모두 겨울에 長皮袍에 皮帽를, 여름에는 夾袍에 白羊毛氈制의 喇叭形 高筒帽를 쓰고, 남녀 모두 絲綢腰帶에 小裝飾物을 매 달았다. 青海 同仁 居住 時期는, 藏族이나 土族의 영향을 받아, 長衫과 禮帽를 쓰던지, 高領의 白色短掛와 黑色坎肩을 두르고, 大裆袴를 입었다. 부녀자는 선명한 색채의 繡花鞋등을 신었다. 回族·薩拉族·東鄉族·漢族 등과 밀접한 왕래가 있어 복식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민족의 전통복식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평시에 백색이나 흑색의 帽子

56) 韋榮慧 主編, [中華民族服飾文化], (北京: 紡織工業出版社, 1992), p.62.

57) [北史·吐谷渾傳] 弁髮于後 首戴金花冠 云云 婦人皆貫珠貝東髮 以多爲貴

를 쓰고, 白布衫과 背布背心을 입었다. 명절에는 禮帽을 쓰고, 장족의 것보다 조금 짧은 黑色條絨 長袍를 입고, 加邊장식이 된 彩色 腰帶를 하고 腰刀를 매달았으며, 牛皮制의 長筒靴을 신었다. 婦女子는 보통 紫紅色 혹은 黑綠色 大襟上衣에 藍色이나 黑色의 土布袴子를 입던지, 무릎을 지나는 長袍에, 花邊의 짙은색 坎肩을 입는다.

현재 保安族의 服飾은, 當地의 回族과 別차이가 없이, 남자는 白色이나 黑色의 號帽을 쓰고, 白色의 汗搭(襯衣)에, 藍色이나 黑色 혹은 灰色바지를 입는다. 未婚 婦女들은 大襟 上衣을 입고, 袴子, 蓋頭를 쓰는데, 결혼 후에는 모두 圓形白帽과 黑色 “蓋頭”를, 노년 부녀는 백색 “蓋頭”를 쓴다. 보안족 복식은 素朴하고, 藏族지구에서는 藏族服飾을, 回族지구에서는 回族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다.

### 5) 裕固族(Yuku)

裕固族은 遊牧民族으로, 그 先祖 回紇人은 蒙古高原에 거주하면서 漠北에 回紇汗國을 건립하였다. 840년 汗國崩壞이후, 回紇人은 新疆의 喀什·吐魯蕃과 甘肅의 河西走廊 등지로 흩어져 각각 高昌回紇汗國·甘州回紇汗國과 忽嶺西回紇汗國을 건설하였는데, 裕固族의 先祖는 忽嶺西回紇汗國을 건립한 維吾爾族 선조와 분리하였다. 西夏세력이 河西走廊에 진입하여 甘州汗國은 파멸하여, 甘州回紇人은 다시 敦煌以西 地區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다. 元朝에 몽고족은 더욱 裕固族 선민생활 통치를 확대하고, 明朝는 이슬람교의 東侵으로 祁連山 北麓에 이르러 몽고족부락으로 옮기어, 裕固族 선조와 공동생활을 하여 점차 현재의 裕固族이 형성되었다. 裕固族 문화는 고대 回紇문화가 위주로 되어 여러번 천도하고, 또 전쟁으로 漢族·蒙古族·藏族 등과 흡수되고 융합되어 형성되었다.

裕固族 服飾은 藏族이나 蒙古族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특색은 우선 모자에 있어, 男子帽은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꾸몄으며, 圓筒平頂緞織白氈帽은 帽沿後邊이 위로 올라가고, 後高前低이면서 扇面形이다. 모자테는 흑색으로 가장자리를

둘러 장식하였고, 帽頂 藍緞上에는 金線으로 직성한 圓形 혹은 圓八角形 圖案이 있다. 서부 裕固族 婦女子의 모자는 尖頂에 帽沿은 後部로 올라가고, 白色綿羊羔毛幹制로 만들고, 넓은 모자 챙을 黑邊으로 장식하고, 내부에는 狗牙花邊과 各色絲線滾邊이 있고, 帽頂腰部的 前面에는 정교한 자수를 놓았다. 동부 裕固族의 모자는 大圓頂帽로 禮帽과 비슷하고, 예모에 비하여 頂이 細高하다. 婦女子 모자는 帽頂部에 모두 紅色線으로 縫成한 帽纓이 있다.

婦女子는 계절에 따라 겹이나 棉, 皮로 된 高領大襟 혹은 斜襟長袍를 입었는데, 깃이 커에 닿을 정도로 높고, 깃 외면의 가장자리는 幾何紋으로 수를 놓았다. 袍는 대개 綠色과 藍色이고, 도련의 양변에 트임이 있고, 大襟上部·도련·트임 가장자리는 雲字花邊으로 가장자리 장식을 하였다. 허리는 腰帶를 매고, 여기에 正方形綢帕(손수건)·三寸小腰刀·荷包등을 달았다. 高領上面에 高領偏襟坎肩을 들었다. 명절이나 경축일에는 繡花布鞋를 신었다.

남자는 布·緞으로 된 高領大襟長袍에, 大紅色이나 藍色 腰帶를 매고, 腰帶에 腰刀·火鍊(부싷돌)·鼻烟壺(코담배)를 달고, 衣襟은 單棉으로 彩色布나 織金緞, 水獺皮로 가장자리를 두루고, 單·夾袍도련에 좌우 트임이 있고, 가장자리를 장식한다. 남자는 單袴를 입는다.

### 6) 撒拉族(Sala)

撒拉族의 先祖는 古代 突厥과 관계가 있다. 突厥은 터키계 유목민족으로 5세기 후반에 高昌北山에서 阿爾泰山以南 일대에까지 진출하였고, 6세기 중반에는 강대해지기 시작하여 柔然을 넘어트리고 독립하였다. 583년에 東西로 분열된다. 東突厥은 蒙古를 지배하고, 西突厥은 투르키스탄(파밀고원)을 지배했으나, 東突厥은 7세기 중엽 唐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고, 西突厥은 天山지방을 唐에게 빼앗기어 服屬되었다. 이와 같이 撒拉族의 선민은 西突厥 烏古期部の 撒魯爾人으

로 수렵 유목생활을 하였다. 元代에 이들은 중앙 아시아에서 青海東部로 이동하여 循化地區에 정착하면서 주위의 藏·回·漢·蒙古등과 교류하면서 상호 융합하여 현대의 撒拉族을 형성하였다.

薩拉族 先祖의 服飾은 [隋書·突厥傳]에 “被髮左衽” “身衣裘褐”<sup>58)</sup>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전의 撒拉族은 유목민족 풍격인 복장으로, 남자는 卷沿羔皮帽<sup>59)</sup>에 半長靴을 신고, 右衽斜領에 腰帶가 있는 長袍는 維吾爾族의 袷衫<sup>60)</sup>과 같다. 노년 남자는 대개 白色頭巾을 썼다. 그러나 현재의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기를 좋아하고, 黑色 혹은 白色圓帽를 쓰고, 白色의 長衫이나, 靑色 夾短衣를 입는다.<sup>61)</sup> 노부녀는 白色, 중년부녀는 黑色, 젊은부녀는 綠色 蓋頭를 쓴다. 蓋頭의 재질은 紗, 綢, 緞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길이가 길어지고, 젊은부녀는 선명한 大襟衣服 위에 黑坎肩을 입는다. 또한 귀거리·팔찌·반지 등의 金銀 修飾도 즐겨했고, 정교한 繡花鞋를 신었다.

생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복장도 변하여, 中山服·西洋服 및 각종 유행복이 착용되었다. 그러나 남자는 紅色과 黃色의복에 대한 엄격한 금기가 있다.

## 7) 維吾爾族(Uighur)

維吾爾族은 역사상 4세기의 [魏書·高車傳]에 袁紇·韋紇·回紇·回鶻·畏兀兒·回部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sup>62)</sup> 이들은 본래 몽고와 투르키스탄 방면에서 활약하던 突厥系의 부족이었으며, 北魏時에 高車部라 하고 혹은 勅勒이라고 하였는데, 訛傳되어 鐵勒이라고도 하였다.

7세기 回紇이라 칭하고 독립하여,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경제·문화를 발전시키며 북방초원의 패자로 등장하였다. 630년 回紇연합은 공동으로 東突厥을 대패시킴으로 回紇의 세력이 북방에 떨치게 되었다. 744년에 回紇汗國을 건립하고, 唐朝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 唐의 生産技術과 文化가 回紇社會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政治·經濟·軍事·文化가 발달하였다.<sup>63)</sup>

그러나 840년 詰戛斯<sup>64)</sup>에게 망한 후 回紇族의 일부는 서천하여 후에 葛謙祿<sup>65)</sup>과 연합하여 喀喇汗王朝를 건립하고, 다른 일부는 東遷하여 河西走廊一帶에 이르러 西州回鶻을 만드니, 이들이 나중에 高昌回鶻汗國을 건립하게 된다.

服飾에 있어 男子는 袷衫이라는, 무릎길이의 것이 없고 단추도 없으며, 寬袖상대인 外衣를 입고,

58) 가죽옷과 거친 모직물. 김소환 의복

59) 모자테가 위로 올라라고 어린 양가죽으로 만든 모자.

60) 烏孜別克, 維吾爾, 塔塔爾, 塔吉克등 남자가 입는 長袍. 無領, 對襟에, 여밈없고 품이 크고 길이는 무릎 아래에 오고, 허리에서 布帶로 여밈. 노인은 棉合半으로 靑色을, 單合半으로는 白色을 입고, 중년은 커피색이나 灰色, 청년은 선명한 색으로 흥, 옥색이나 줄무늬의 것을 입는다. 대개 祝祭시나 外出시에 儀禮의으로 입는다.

61) 國歌民族事務委員會編, [中國少數民族], (北京: 人民畫報社, 1994), p.232.

62) [魏書·高車傳]

63) [唐書·回鶻傳] 回紇其先匈奴也 俗多乘高車輪 元魏時 亦號高車部 或曰 勅勒 訛爲 鐵勒.

[讀史方輿紀要·山西外夷附考·漠北諸部] 回紇 在漠外 本匈奴別種也 其先曰 袁紇 亦曰 烏護 又曰 烏紇 至隋曰 韋紇 後爲 回紇 初居 薛延陀北 婆陵水上 去 長安 七千里 隋大業中 回紇 五部云云.

64) 突厥族에 속하며 唐의 中世에 回紇을 별함. [讀史方輿紀要, 山東. 外夷附考] 詰戛斯國 在廢庭州 北七十里 即古之 堅昆 漢紀 堅昆東去單于庭七十里 南至 車師 五千里 黃龍元年 질支單于 西擊 烏孫 因北并 堅昆云云.

65) 원래 北庭의 西北, 金山의 西에 있어, 僕固振水에 걸쳐 있고, 車鼻部와 접해 있는 突厥族.

[唐書·回鶻下·葛謙祿傳] 葛謙祿 本突厥諸族 在北庭西北 金山之西 跨僕固振水 包多 崑崙 與 車鼻部接 有三族 云云

66) 黃河 以西의 지방. 즉 지금의 陝西, 甘肅 지방과 蒙古의 일부

여기에 腰帶를 매어 여러가지 물건을 달고 다녔다. 경축일에는 선명한 색채로 된 刺繡腰帶를 한다. 속옷은 길이가 짧고 앞이 막혀 있으며, 청년은 가장자리를 花邊으로 장식한다. 夏季에는 白色의 單袷衫을, 冬季에는 黑色, 灰色 혹은 진한 색의 棉袷衫을 입는다.

婦女子는 선명한 색채의 一部式의 連衣裙<sup>67)</sup>과 그 안에 襯裙을 입었으며, 밖으로 坎肩을 입거나, 혹은 西洋服 上衣를 입는다. 종교적인 관습으로 남녀 모두 室外에서는 맨머리가 허용되지 않아 정교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小花帽를 착용한다. 심지어는 경건한 청년부인은 모자위에 白色蓋頭를 동시에 쓰기도 한다. 冬季에도 양테가 없는 皮帽를 썼으며, 여자는 대부분 羊絨<sup>68)</sup>이나 棉絨 頭巾을 쓴다. 男女모두 皮靴나 皮鞋를 신고, 외부에는 套鞋를 덧 신는다. 室內나 清真寺<sup>69)</sup>에 예배 들일 때는 套鞋를 벗어 실내를 청결히 한다.

부녀자는 귀거리·팔찌·반지 등을 즐겨 끼고, 양 눈썹을 일자로 연결하여 그린다. 결혼 전에는 십여개에서 수십개의 머리가닥으로 땀다가, 결혼 후에는 네가닥으로 땀아, 뒤에서 양가닥으로 합치든지 단지 두가닥으로 땀기도 한다.

宗教 종사자는 긴 白布의 纏頭를 하고 腰帶를 하지 않는 袷衫을 입어 일반 교도와 구별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維吾爾族의 복장양식도 변화하여 청년층은 서양 유행복장을 따르게 되었다.

## 8) 哈薩克族(Kazakh)

哈薩克족은 역사상 伊犁谷地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수 많은 부락으로 산재하여 거주하면서 장기간 발전과정중 융합하여 형성되었다. 최초의 기원은 烏孫·康居·阿蘭 등 부락연맹이며 烏孫故地의 伊犁谷地와 七河平原이 哈薩克族의 발원지이다. 6세기 이후 突厥이 흥기하여, 烏孫 故地는

西突厥의 통치권에 들어가고, 12세기에는 契丹人이 서쪽으로 옮겨갔으며, 13세기에는 이곳 또한 蒙古帝國의 통치하에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지방의 哈薩克族은 突厥·契丹과 蒙古 등 여러민족이 조금씩 취합되어 그 발전 과정중 합족의 구성 성분이 되었다. 15세기 中葉 哈薩克族은 哈薩克汗國을 세웠는데 이것이 哈薩克族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哈薩克族은 초원지대에서 牧畜業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으나, 일부분은 山地 高寒地帶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하여 복식 또한 高寒·草原·牧畜生活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牧畜 皮毛의 복식이 대부분이다. 그중에도 羊皮·羊毛·羊絨이 제일 많고, 유목 생활의 騎乘에 편리하도록 복장은 비교적 헐렁하고, 튼튼하고, 마찰에 강하다.

남자의 服飾중 狐狸皮(여우털) 혹은 黑羊羔皮(어린이)의 帽頂이 사각형이고, 帽面은 선명한 색채의 綢緞으로 만든 모자를 썼으며, 頂上에는 貓頭鷹毛로 장식한다. 원추형 모자는 안감으로 旱獭皮 혹은 黑羔皮로 만들고, 겉은 黑色·藍色 綢緞으로 만든다. 백전모는 黑羔皮로 緣을 두른 것이고, 防霜과 防雨에 쓴다. 小花帽는 각종 彩色絲로 수놓은 圓頂小帽이다.

男子 衣服은 대부분 羊皮制로, 冬季에는 皮衣와 皮袴를 입거나, 圓領皮大衣를 덧입기도 한다. 夏季의 白襯衣는 깃이 높고, 기하문양의 絲線繡를 사용한다. 襯衣 위에는 坎肩을 입고, 위에 短上衣 혹은 長袷衫을 입는다. 유목민은 하계에 안감과 겹감을 布로 만들고, 속에 駝毛나 羊絨을 넣은 大衣를 雨衣로도 입는다. 하계에 또한 長袴를 입으며, 袴脚에 花紋을 수놓는다.

남자의 牛皮 腰帶는 金·銀·寶石·眞珠 등으로 장식하고 좌측에 주머니를, 우측에 小刀를 달아 필요할 때 사용한다. 남자의 鞋나 靴는 피혁으로 만드는데, 長筒皮靴는 무릎까지 오며 이 속에

67) 一部式衣. 즉 원피스형태를 지칭하는 中國式 표현법.

68) [中華大字典] 絨 織物之厚而暖者曰絨 以絲與綿紗羊毛等爲之.

69) 回教寺院의 稱號. 일명 禮拜寺. 唐代 처음으로 세우기 시작함.

氈襪을 신고 전발의 끝은 絨布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수렴시의 軟靴는 탄성이 큰 피혁으로 만든다.

婦女子 服飾은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라 양식이 다르다. 두식에는 모자와 두건 등 있는데, 주단으로 만든 圓形 帽子이고, 帽頂에는 羽毛를 꽂아 吉祥과 智慧를 표시한다. 綢緞과 犴皮로 만든 圓帽子는 帽壁에 繡花를, 帽頂에 羽毛를 꽂는다. 頭巾은 幾何花文의 四方白布繡로 만든 것과 絲綢나 毛布로 만든 三角形과 正方形 모양이 있다. 中年 婦女의 套頭巾은 白布로 만들고 上面에 花卉도안의 繡가 있는데, 넓고 커서 머리, 어깨 및 요부, 둔부에까지 이르고, 얼굴만 간신히 노출시킨다. 年長 婦女는 비교적 검소한 套頭巾이나, 白色大頭巾, 駝色毛頭巾을 쓴다.

婦女子의 服裝은 各種 화려한 색상의 綢緞·毛布·條絨·棉布로 만들고, 선명한 색채의 원피스(連衣裙) 혹은 短裙을 착용한다. 젊은 부녀는 소매에 수를 놓고, 특히 주름이 많은 連衣裙을 입고, 그 위에 紅·綠·黑色 坎肩을 착용한다. 미혼 여자는 內衣 깃을 花紋으로 繡놓고, 위에 坎肩과 單袖에 주름진 連衣裙을 입고, 가슴에는 金銀제의 장식품을 단다.

중년부녀는 하계에 單袖長襟袷衫 위에 黑色이나 黑綠色 坎肩을 입는다. 겨울에는 羊羔皮 혹은 狐皮大衣를 입고, 腰帶를 하기도 한다. 노년부녀의 복장은 검소한 옷을 입는다. 부녀는 귀거리, 반지, 목걸이를 즐겨 한다.

부녀의 신발에는 高筒皮靴·皮鞋가 있으며, 雨雪을 막기 위해 外面에 套鞋를 신는다.

### 9) 塔塔爾族(Tartar)

塔塔爾族은 일찌기 북방 유목민족인 突厥汗國의 일개 부족이었으며, 韃靼 등으로 역사상에 출현하며, 蒙古人을 비롯한 여러민족이 상호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이다. 7~8세기에 불가리아인이 타탈 경내에 들어와 거주하여 원시사회가 와해되고 봉건제가 형성되어 생산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13세기 후반에 징기스칸이 불가리

아를 점령하고 金帳汗國을 세웠다. 15세기에 金帳汗國이 와해되고 喀山汗國이 건립되어 불가리아인이 주체민족이 되었고, 그밖에 몽고족등이 있었다. 16세기에 喀山汗國이 러시아에 병합되어, 18세기에 喀山省이 성립되고, 19세기 상반기 러시아 연방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타탈인이 중국 邊方인 新疆에 이주하게 되면서, 중국의 일개 소수민족이 되었다.

남자 복식은 黑色이나 白色의 繡花小帽를 쓰며, 겨울에는 黑色의 卷毛皮帽를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깃·소매·가슴에 十字繡紋로 수놓은 白絨衣에 허리에 오는 黑色 短背心 혹은 무릎에 오는 黑色 對襟長衫을 입으며, 黑色 長袴를 입고 皮帶로 맨다. 색채 대비가 특히 강렬하여 黑白 대비를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皮靴를 신는다.

부녀자는 白色이나 黃色 혹은 紫紅色 連衣裙을 입으며, 소매가 寬大하여 帶로 매기도 한다. 또한 小花帽의 가장자리를 구슬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金銀의 귀걸이·반지·팔찌·목걸이등을 한다. 기혼부녀는 각종 小花帽 외에, 頭巾을 더 쓰고, 花鞋를 신는다.

그러나 현재는 남녀 모두 변화가 있어, 남자는 서양복을 입고, 여자는 각종 양식의 연의군을 입으며, 남녀 모두 皮鞋를 신는다.

### 10) 烏孜別克(Uzbek)

烏孜別克族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아, 12~13세기에 기록에는 族名으로서가 아니라 인물의 명칭으로 처음 보이고, 14세기에 蒙古 欽察汗國 烏孜別克汗에서 그 族名이 유래한다. 그 선조는 일찌기 중앙아시아로부터 中國 新疆에 이주하였고, 또한 元代에 金帳汗國의 烏孜別克인이 실크로드를 따라 新疆을 경유하여 중국 내지로 상업을 하였고, 일부분이 신강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것이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가 되었다.

服飾은 中央아시아나 新疆의 많은 민족의 공통점 외에 다른 특징도 갖고 있다. 남녀는 모두 정교하고 선명하며 도안이 섬세한 전통적인 小花帽를

쓴다. 花帽는 비교적 扁平하고, 金銀 薄片으로 장식을 하고, 花帽邊에 緣을 두른 뒤, 다시 진주·玉片·마노·비취·산호·호박 등 보석으로 花帽도안을 채웠다.

부녀자는 모두 머리를 땅고, 귀걸이·목걸이·홍식·반지·팔찌등을 했다. 축제일에는 성대하게 頭飾을 달고 정성스럽게 장식한다. 수식은 金·銀·銅 등 金屬을 특수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象嵌에 사용되는 재료는 교묘하게 잘 발달되었다. 통상 사용되는 재료는 인조보석이나 천연수정으로 색채가 매우 풍부하다.

앞트임 둘레와 소매끝 花邊 彩色繡로 장식한 襯衣(속옷)를 입고, “托尼”라는 長衫은, 黑·純白·淡藍·淡灰·深藍·深灰 등 각종 布料나 綢緞으로 만들고, 花紋으로 장식하여, 維吾爾族의 舍半과 비슷하다. 어떤 帶는 花邊이 있고, 길이는 무릎에 이른다. 托尼는 綢와 각종 毛織으로 만든다. 남자 속옷의 깃 가장자리, 前襟開口部와 袖口는 보통 紅·綠·藍의 색동(相間) 채색 도안으로 花邊을 만든다. 청년층은 다양한 색의 의복을 착용하나, 노년은 주로 黑色과 褐色을 입는다.

젊은 부녀는 전통복식인 관활하며 주름이 있는 連衣裙을 요대를 매지 않고 착용하는데 色彩가 화려하나, 老婦女는 黑色·綠色·褐色 등의 옷을 입는다. 婦女子는 모두 두건을 쓰는데, 正方形으로 크기가 다양하다. 젊은 부녀는 小方巾을 쓰고, 중년 부녀는 大方巾을 착용하는데 재질은 棉·絲·毛 等이며, 그 色彩나 圖案도 다양했다. 이전에는 부녀가 외출시에 모두 黑色面紗인 蓋頭를 썼다.

남자는 托尼를 입을 때 각종 綢緞 花布 혹은 棉料繡織으로 만든 腰帶를 한다. 요대는 긴 모양과 方形이 있는데, 方形은 반을 접어 삼각형으로 매고, 尖角은 뒤로 둔다. 청년남자의 요대는 화려한 색채이고, 노년은 비교적 淡雅하다.

남녀는 모두 皮靴·皮鞋에 套鞋를 덧 신는다. 투혜는 皮制이나, 실내에 들어갈 때는 투혜를 벗는다. 高筒의 彩色 皮革의 피혜는 정교하게 만들었다.

## 11) 柯爾克忒族(Khalkhas)

柯爾克忒족은 [史記]에 隔昆<sup>70)</sup>이라고 처음 나타나며, 다음에 隔昆이라 했는데, 漢魏시대에는 堅昆, 南北朝시대에는 結骨·紇骨·契骨·護骨 등라고 칭했고, 840년 回骨汗國에 침입하여, 回骨人을 지금의 新疆 境內로 西遷시켰으며, 당시 이 민족의 또한 일부분이 新疆境內로 들어갔다. 元代의 吉利吉斯가 바로 柯爾克忒<sup>71)</sup>이다. 청대에 柯爾克忒族을 布魯特 혹은 布依魯特이라고 했다. 布魯特은 원래 准噶 蒙古人이 사용하던 柯爾克忒族에 대한 호칭이다. 柯爾克忒族의 居住地는 대개 高山地區나 牧場이 보통임으로, 服飾 또한 牧畜의 毛皮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남자의 복식은 小帽를 쓰는데 下邊에 黑絨을 대고, 모자챙이 위로 향하며, 帽頂이 四方形인 雪白潔淨의 白色 氈毛를 쓴다. 재료는 狐狸皮나 羊羔皮로 만들고, 羊皮로 안감을 댄다. 衣服은 長衣에 皮帶를 띠고, 여기에 小刀를 매댄다. 이 속에는 長袴와 襯衣를 입는다. 신은 高筒皮靴 혹은 氈靴를 신고, 노인은 겨울에 皮袴과, 氈靴, 氈襪을 착용한다.

婦女子는 衣裙에 冠을 쓰는데, 미혼은 紅色小花帽나 紅色 羽毛가 꽃힌 大圓頂帽를 쓴다. 그리고, 連衣裙이나 褶長裙을 입는데, 裙은 도련에 각종 도안의 花紋으로 수놓은 絲線繡가 있으며, 은단추나 동전을 부친 坎肩이 있다. 高筒皮靴를 신고 젊은 기혼녀는 홍색·녹색두건을 머리에 쓰고, 홍·녹·자색 上衣와 紅裙을 입으며, 귀걸이·목걸이·팔찌·반지 등을 즐겨 달았다. 땅은 머리에도

70) 匈奴國의 名稱. [史記·匈奴傳] 後北服 渾庚 屈射 丁靈 隔昆 新犁之國

71) [漢書·匈奴傳下] 即使 使至 堅昆通語吏. [舊唐書·迴紇傳] 太宗爲從 六部七州 云云 又以迴紇 西北結骨大首領將等謝 公主下降 兼奏破堅昆五萬人

銀幣, 銅幣, 구슬등의 장식품을 달아 움직일 때 매우 운치가 있었다

## 12) 俄羅斯族(Russian)

俄羅斯族은 본래 中國 國境과 인접해 있던 跨界民族<sup>72)</sup>으로 러시아 聯邦의 主體民族이지만 少數民族으로 中國에 출현한 것이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中國의 俄羅斯 民族과 러시아 民族이 그 근원을 같이 하는 것은 물론이나, 단지 中國과 러시아는 생활환경과 문화 기후 등의 조건이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中國의 少數民族으로서의 俄羅斯족 文化發展 상황은 다르게 나타난다.

俄羅斯族이 中國 본토에는 元代에 출현<sup>73)</sup>하나, 清代 初年부터 中國 동북에 있어, 러시아의 군사적 목적이나 移民 등으로 점차로 中國 영토에 定居하게 되었다. 또한 1790년부터 북경에 러시아 東正教 傳導團이 상주하게 되면서, 이후 200여년 간 약 200명의 東正教人들이 북경에 거주해 왔으며, 이들은 淸 康熙年間에 북경에 “尼古拉”이라는 東正教堂도 건립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漢族 과의 결혼등으로 漢文化를 받아들여 衣食住만이 아니라 사고 방식도 漢族과 비슷하게 변천하였다.

俄羅斯族은 주요 居住地가 北京을 비롯한 동북 지방과 서북지방의 新疆 등인데, 특히 新疆은 俄羅斯族의 주요 叢居地이며, 20세기에 들어와 上海·天津·靑島등으로 그 거주지가 확장되었다.

俄羅斯族의 服飾은 本土 民族인 러시아인의 전통 특색을 비교적 많이 간직하고 있다. 남자는 대개 무릎까지 내려오는 襯衫과 細腿袴를 입고 呢帽

나 毛皮帽을 쓴다. 부녀자는 粗布親衣에다 외부에 無袖에 하이 웨스트의 對襟長袍를 입으며, 下衣는 毛織 長裙을 입는다. 부녀자는 白色이나 黃色의 上衣에 領口와 袖口 밑 가슴에 繡花紋 도안을 넣었다. 남녀의 外衣는 비슷하며 춘추에 上衣나 長袍를 입는다. 冬季에는 羊皮 短衣, 혹은 皮大衣를 입고, 남녀 모두 皮靴·皮鞋·氈靴를 신는다.

頭飾에 있어 未婚과 既婚을 엄격히 구분하여, 미혼은 한가닥으로 머리를 땡아 선명한 색채의 髮帶로 장식했고, 頭髮을 밖으로 노출할 수 있으나, 기혼은 두가닥으로 땡아 두상에 올리고 두건이나 모자로 쌓아 頭髮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귀걸이 목걸이를 즐겨 하기도 한다.

中國에 있어 俄羅斯族의 복식은 中國으로 이주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생활풍습이나 기본복식은 현재의 러시아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러시아 복식과 상동하며, 중년층은 한족 복식을, 젊은층은 서양복식을 선호한다.

## 13) 塔吉克族(Tajik)

塔吉克족은 유럽 인종에 속하며, 그 先祖는 東部 이란 部族이다. 考古學분야의 기록에 의하면 樓蘭·疏勒·莎車·巴楚·吐魯番 등지와 古代 帕爾米라 地區의 北方인종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粟特人(Soghd. 소그드인)<sup>74)</sup>은, 중앙아시아의 아물강과 실강 일대에 정착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한시기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에까지 상업으로 그 명성을 떨쳤다.<sup>75)</sup>

72) 跨界民族是指由于長期的歷史發展而形成的, 分別在兩個或多個現代國家中居住的同—民族 [中國跨界民族], 金春子, 王建民編著 民族出版社, 1994. 北京 p.1

73) [龍沙紀異] 俄羅斯 古大食國 歷今一千七百一十餘年 元太祖與其弟分收 其弟滅 俄羅斯 即以封之 曰察罕汗. [清會典. 總理各國事務衙門] 凡有 約之國十有六 曰 俄羅斯

74) 지금의 사마르칸드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古國의 名稱. 이 지방은 古來 이란인의 중요한 하나 의 근거지로 後漢書 西域傳에 粟特國, 南北朝時代에는 粟特, 또는 粟持라고 하였다. 나아가 南北朝시대에는 一國이 아니라 六國 내지는 九國으로 이루어진 聯邦으로 六姓 昭武 또는 九姓 昭武에 의해 統轄되었다.

75) [北史·西域傳]에, “自高昌以西諸國人皆深目高鼻”라 하고, [新唐書·西域傳]에 “文身碧瞳, 金髮碧眼” 등은 이들을 말한다.

11세기에 돌궐 유목부족들이 이란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민족을 “탐길국”이라 부른 이후 일개 민족의 명칭이 되었다. 역사상 신강의 광대한 지구의 塔吉克族과 파밀 서부로 동전하여 정거한 塔吉克族을 모두 이들의 先祖로 본다.

服飾은 中國 西北地域 民族 服飾의 공통점을 갖는 반면, 이 민족의 독특한 개성도 갖고 있다. 생활근거지가 파밀 高原地域임으로 寒冷하며 四季節이 분명하지 않아, 복장도 棉·皮衣와 夾衣가 주로 착용된다. 남자는 衫衣를 입고 對襟 長袍나 長衫에, 束帶를 하고, 여기에 小刀와 부싯돌 등 所持品을 매단다. 冬季에는 皮大衣에 가장자리에 繡를 놓은 圓筒形 帽子를 쓰는데, 모자 속은 黑色 羊羔皮로 만들고, 모자챙은 위로 올라가게 한다.

婦女子 服飾은 아름다운 색채의 連衣裙 위에 몸에 끼는 小背心의 對襟 長衫을 입는다. 또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즐겨 패용했고, 모자도 발달하여 뒷부분이 비교적 길며 백포제로 만든 것이 있다. 모정과 모자사방은 정교한 도안의 사선자수가 있다. 모자 밑으로 내려오는 발변상에는 백유구나 은원형의 장식물을 달았다.

부녀자의 弁髮의 數로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중노년은 한가닥의 장발로 처리하고 중년부녀는 귀밑머리를 늘어트릴 수 있었다. 미혼과 신혼 부녀는 4가닥의 번발로 머리를 다듬는데, 단지 신혼 부녀는 땡은 머리에는 장식물을 달고, 미혼은 금속장식구슬을 사용하여 머리를 올렸다. 팔찌·반지는 모두 塔吉克族 부녀가 즐겨하는 장식품이고, 기혼부녀 외출시는 後頭로부터 발꿈치에 이르는 白紗를 쓰고, 허리에 삼각형 繡花腰帶를 매었다.

탐족 남녀 모두 자신들이 짠 직물로 만든 長筒 毛線襪을 신고, 겨울에 氈襪에 皮靴을 착용하는데, 羊皮로 만든 上衣을 입는다. 靴頭는 尖形이며 靴底는 부르럽고, 색깔은 대개 홍색인데 정교하고 防寒과 防水에 뛰어나다.

## V.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類型

服飾은 民族生活文化의 일부분이다. 中國은 55개 少數民族이 있으며, 그 민족의 수만큼 服飾에 있어도 55種類가 있어, 그들 대부분은 漢族의 服飾과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同一 民族이라 할지라도 地域이 다르면 衣服 또한 다르다. 本論文에서 살펴 본 東北地域과 西北地域에 거주하는 20개 소수민족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本章에서는 이들 20개 소수민족 복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고 나아가 이들 복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 소수민족 복식의 類型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衣服의 재질은 흔히 경제생활의 영향을 받는다. 가령, 過去에서부터 漁獵이 생계유지의 필수적인 수단이어서 歷史上 漁獵部라고 불려온 東北 少數民族 중의 하나인 赫哲族은, 魚皮를 부드럽게 손질하여 옷을 만들고, 그 魚骨을 갈아서 여미 단추로 삼았으며, 海貝를 줄에 꿰어 옷 가장자리 등에 달거나 장식으로 삼을 줄 알았다. 興安嶺 大山林 속에서 생활하는 鄂倫春族·鄂溫克族은 狗皮를 장만한 뒤 獸筋으로 衣·袴·靴·帽等を 봉제했고, 被褥 또한 모두 狗皮와 熊皮로 만들었다. 또한 鄂溫克族은 獸皮를 숙성시켜 黃色으로 만들거나, 염색하든지 하여 銅色으로 변색시킨 다음, 毛皮의 안쪽을 겉으로 이용하여 皮衣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皮衣에 金線과 銀線 등, 各種 色絲로 花草나 動物紋을 刺繡하는데, 이 자수를 통하여 鄂倫春族의 婦女子의 솜씨를 자랑했다. 또한 婦女들은 狗頭의 皮帽를 만들어 狩獵時에 착용하는데, 그 솜씨가 巧妙하여 실제 狗頭의 形狀을 하고 있었다. 達斡爾族은 일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겨울 農閑期에는 狗皮 狩獵衣를 입고 獵獲한 灰鼠·舍利 등 각종 獸皮로 坎肩이나 靴帽와 衣被를 만들어 입었다.

牧畜을 위주로 하는 蒙古·哈薩克·柯爾克孜·塔吉克·裕固·土族 등은 畜皮毛를 입는다. 이들 민족들은 과거에 비교적 부유한 牧民만 綢緞布帛



을 입고, 일반 노동인은 단지 內衣나 여름에만 직물을 입을 수 있었다. 이들은 羊皮로 衣·袴·大衣를 만드는데, 모피의 털 부분이 안으로 향하게 만들고, 衣領·袖口·衣襟·도련은 色布나 細毛皮로 장식했다. 柯爾克孜族은 아주 진귀한 裘皮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長袍와 裙은 특히 장중하게 보인다. 羊毛, 駱駝毛, 牦牛毛(들소) 등 재료는 다양했다. 裕固族은 羊毛를 손으로 실을 뽑아 직성한 것을 褐子라 하여 衣被·방석·靴子나·毛袋를 만들었다. 哈薩克族의 外套는 駱駝毛를 안에 넣어 매우 가벼웠다. 蒙古族이나 柯爾克孜族은 모두 양모로 氈氍을 만들고, 住居用인 蒙古包를 둘러 氈房을 만드는 외에 靴·襪·帽子的 원료로 쓴다.

遊牧民이 草原을 달릴 때, 皮毛는 필수적이 御寒用品이었다. 哈薩克族 牧民은 色彩 鮮명한 緞面 羔皮 혹은 狐皮 三葉帽을, 柯爾克孜族은 高頂卷檐 皮帽을, 高原上의 塔吉克族은 黑絨面羔 皮帽을 착용하는데, 모두 특색이 있었다.

維吾爾族의 染織은 그 역사가 유구하다. 그것은 실크로드의 古代 西域絲織工匠을 반영하는 것으로, 中國 中原地域의 織綢와 捺染기술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했다. 이것은 中國 古來의 염색법중 工藝織染의 絲綢로 색채가 현란하고, 도안이 특이했다.

各 少數民族의 복잡 다양한 복장 양식은, 그 분류에 있어 어려움이 없지 않다.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북방은 寬袍長掛 형식이고, 남방은 長短裙袴이다. 鄂倫春·鄂溫克·赫哲·錫白·達斡爾族 등은 滿族의 복장과 비슷하여, 大襟의 長袍 혹은 短掛, 때로는 밖에 坎肩을 하는 것 등이나, 장식에 있어 특히 刺繡法나 邊式 등을 考案했다.

라마교를 신봉하는 蒙古·土·裕固族 등은 長袍·袴·靴 등이 주요 복식이었으며, 여밈은 좌임과 우임이 있고, 자기 민족의 관습에 따라 袍의 도련에 트임을 두었다. 蒙古族은 邊裝飾이 있는 寬大長袍에 有領右衽이나 도련에 트임이 없고, 彩色 綢帶에 小刀를 패용하고, 鼻煙壺와 火鑪 등을 양단에 늘어뜨렸다.

裕固族의 左襟長袍는 高領에 紅色·藍色 腰帶로 매고, 女袍의 領邊과 袖口는 모두 자수의 花邊이 있다. 土族 婦女의 袍袖는 매우 아름다워, 위에서부터 一寸 넓이로 藍·紅·白·綠·黑色의 五色 색동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위에 黑色 坎肩을 입어 매우 아름답다.

新疆 維吾爾族 男子의 무릎에 오는 對襟長袍인 袷袂는 右衽直斜領에 앞도련이 막혀있고, 花色方巾으로 腰를 매고 일반은 대개 줄무늬이다. 합반의 형식은 신장지구에서 보편적인데, 烏孜別克族은 이것은 托尼라 하고, 哈薩克族 柯爾克孜·塔吉克族 등도 같은 양식의 袍를 착용하며, 재질은 대개 棉이나 駝毛직물이다. 婦女의 裙衫형식도 많아 維吾爾族 여자는 寬袖連衣裙외에 허리에 오는 꼭맞는 黑絨背心 착용하고, 烏孜別克族은 腰帶가 없는 褶裙衫을 '魁納克', 塔吉克族 처녀는 連衣裙외에 對襟長背心을 착용한다. 기타 민족은 帶縮邊의 連衣裙과 서양식 上衣 혹은 裙子를, 겨울에 袷袂를 입는다.

이와 같이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는 신장지구의 각 민족의 복장은 대동소이하나, 그들은 종교의 戒律상 맨 머리로 다니는 것을 忌避하여 특히 모자가 발달했으며, 모자에서 각각 민족적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維吾爾族은 男女老少 모두 四稜小帽인 '朵巴'를 쓰고 있는데, 색깔이나 도안 양식이 다양하다. 중년 남자의 '巴且姆朵巴'는 黑地상에 백색의 巴且杏核과 水波紋 도안으로 수놓은 것으로 아름답다. 哈薩克族의 소녀는 繡花小帽인 '塔克亞' 상에 貓頭鷹羽毛의 帽纓이 있고, 迎風搖曳를 직립시켜 특히 아름답다. 그들은 이와 같은 小帽 이외에, 다리 중간에 이르는 白色披巾을 늘렸다. 塔塔爾族은 黑色이나 白色의 繡花小帽를 즐겨 쓰고, 여자는 珠子로 가장자리를 장식했다. 烏孜別克族의 無稜小帽는 여러종류로 색깔이 鮮艷하고 도안이 특수하며, 一色黑이나 紫紅絲絨으로 만들어, 정교한 솜씨를 보이는데 烏孜別克族 부녀는 항상 小帽 밖에 挑花繡邊披巾을 쓰고 다닌다. 塔吉克族 여자의 繡花帽는 後簾을 두르고 있고,

나아가 前沿에 수 많은 小銀連(작은 은쇠사슬)을 달고 있다. 柯爾克孜族은 老少를 불문하고 小帽의 紅·綠色 頭巾을 썼으며, 老年 부녀는 白色을 숭상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帽子로서 新疆地區의 少数民族를 식별할 수 있다. 서북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伊斯蘭교圈의 回·東鄉·撒拉·保安族 등은 단지 습관상 小白帽나 小黑帽을 쓰며, 婦女는 蓋頭를 쓰는데, 年齡이나 既婚·未婚 등에 따라 白·黑·綠色 등 다른 색의 蓋頭를 쓴다.

신강지구의 少数民族인 塔吉克族은 그 母國과 함께 伊斯蘭교를 신봉하고 있지만 다른 伊斯蘭교권 少数民族에 비하여 복식이 화려하고 그 數에 있어서도 풍부하다. 이것은 원래 塔吉克族이 山地部와 平野部에 사는 民族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up>76)</sup> 그중에 산지부에 사는 民族은 非 伊斯蘭教적인 요소가 강하여 원래 소박하고 단순한 伊斯蘭教권의 복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少数民族 服飾의 특징은 寬博하고 素朴하며, 각 民族이 신봉하고 있는 신앙이 복식

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가령 라마교를 신봉하고 있는 蒙古·土·裕固族의 服裝은 그 복식의 구성이 복잡하고, 색채가 현란하며 장식이 많아, 마치 라마교의 紅色·黃色의 僧服을 입는 僧侶들과 라마寺院 內部の 분위기와 흡사하다. 이에 반하여 回·維吾爾·哈薩克·東鄉·柯爾克孜·撒拉·塔塔爾·烏孜別克·保安族 등은 伊斯蘭교의 영향을 받아 복식이 소박하고 꾸밈이 적어, 伊斯蘭教의 清真寺의 분위기와 합치된다. 또한 薩滿을 신봉하는 동북지구의 滿·達斡爾·錫伯·鄂倫春·鄂溫克·赫哲族은 공통적으로 모두 長袍를 입는다.

이와 같이 少数民族의 복장에 있어, 그 樣式·色彩·圖案은 천차만별이나, 서북지역의 少数民族를 제외하고는 그 특징에 있어 漢族과 相同하는 점이 많다. 즉 서양복이 인체를 고려한 立體裁斷임에 반해 少数民族 복장은 거의 平面裁斷이다. 나아가 少数民族는 實用과 審美性을 겸비한 예술 전통을 복식에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다. 가령 색조가 단조로운 魚皮나 狗皮의복에 赫哲族 부녀는

中國의 東北·北方·西北地域 少数民族의 服飾 類型

	東北 地域	北方 地域	西北 地域	備 考
被服型	東方型	北方型	西方型	
被服樣式	前開型 (카프탄형)	體形型 (上下衣形)	貫頭型 (一部式衣)	
衣服形態	旗袍·蒙古袍	衣袴形態	長衣	
帽 子	風雪帽	狗頭帽	繡花小帽	回族; 白色圓帽
腰 帶	長綉子 腰帶	具 帶	方巾 腰帶	
衣襟形態	大襟	對襟	對襟	
材 質	布·獸皮	狗 皮	布·獸皮	
服飾特色	神秘性	呪術性	簡潔性	
宗 教	喇嘛教	薩滿教	回 教	滿族; 薩滿
運送手段	馬	狗	馬·駱駝	
生產手段	遊牧生活	狩獵·漁獵生活	農·商·放牧生活	
氣 候	大陸性 氣候	寒帶 極寒性 氣候	砂漠性 乾燥氣候	

76) 加藤九祚, “タジク人—その民族學的特徴”, 服裝文化; 155號, p.76

鹿皮를 잘라 雲紋이나 動物變形 圖案을 領邊이나 袖口에 자수로 부쳐, 색채도 아름답게하고, 가장 자리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많은 민족들은 신이나 帽子제작을 연구하여, 생활상에 필수품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장식작용도 매우 컸다. 어떤 精工細作의 구두나 모자나 직물은 바로 공예미술품이 되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50여개 민족의 복식은 다양하나 깊히 들어가 그들의 역사와 경제와 문화를 이해하면 비로소 服飾上에 種族을 識別할 수 있는 補助 자료가 된다. 本章에서는 東北과 西北地域의 少數民族의 服飾의 類型을 살펴 보았는데, 계속하여 西南地區 民族의 연구를 끝낸 후에 이들을 모두를 일괄하여 도표로 작성해 보고자 한다.

## VI. 少數民族 服飾의 影響

### 1. 中國服飾에 미친 영향

중국은 多民族 국가로 각 민족문화는 그 발전과정중에 상호로 민족문화의 흡수와 융합을 이루었다. 중국역사상 유명한 “胡服騎射”라는 말은, 戰國時代 趙武靈王이 채용한 西北方 遊牧·半遊牧民族의 服飾을 말하는 것으로, 胡服을 착용하고 騎射를 모방한 것으로, 中國 歷史上 처음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服飾改革이었다.<sup>77)</sup> 이것은 上褶下袴의 服飾으로, 武冠은 貂와 蟬으로 장식하고, 金鉤로 장식한 具帶에, 靴를 신어 騎射에 편리하게 하였다. 趙武靈王의 이러한 措置는, 趙國의 병사 전투력을 증강시켜, 富強을 촉진시켰다. 沈從文의 고증에 의하면, 이런 호복은 商周의 노동자와 戰士의 일반 복장이었는데 戰國時代에 사용한 것에 비해 1000년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sup>78)</sup> 호복의 영향은 우선 古代 中原의 勞動人民이 창조한 복식의

영향이 羌戎에 미쳤다고 한다. 즉 古代 中原이 羌戎에 영향을 주어, 무령왕이 다시 이와 같은 복장양식을 따랐으므로, 중국 각종 민족이 서로 복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 歷史上 대량으로 흡수한 호복이 전 통복식으로 개조된 것은 唐代였다고 볼 수 있다. 唐代는 開元 天寶年間에 婦女들이 胡服이 유행하였다.<sup>79)</sup> 소위 胡服·胡帽의 衿袖 窄小條紋卷口袴 및 軟金靴등은, 則天武后時代에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唐書·五行志]에도 말하길, 天寶初 貴族 및 士民은 胡服과 胡帽을 좋아하여, 부인의 주요복식이 簪步 搖叉 衿袖窄小라고 표현되어 있다. 호복의 특징은 높은 머리의 尖錐形 渾脫花帽에, 番領小袖長袍, 領袖間에 錦繡緣飾, 細縷帶, 條紋毛織物小口袴에 軟錦透空靴 등이 선정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복식은 당시에는 西北民族인 高昌위글문화와 페르샤국의 영향이었다. 元和 이후에 唐代 婦女의 복식은 다시 吐蕃의 영향을 받아, 頭部髮飾과 얼굴 화장에 중점을 두었다. 그 특징은 椎髻와 烏膏를 입술에 바르는 것과 黃粉을 칠하고, 눈섭은 가늘고 八字로 그리는 것 등이다.

維吾爾文化가 중국복식에 미친 영향은, 이미 北齊시대에 시작되어, 당시 남자의 모자에 반영되었고, 부인은 回骨복장과 머리양식을 따랐다. 앞에 인용한 [舊唐書·輿服志]에도 唐武德中에 宮中の 유행을 설명하고 있어, 唐代에는 우선 宮中 貴族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그 밑의 부녀들이 본따고, 다시 일반백성으로 내려가 이를 본받아, 전국을 풍미하게 되어 어떤 신하는 당태종에게 금지령을 내리도록 청하였으나, 唐太宗은 오히려 이들을 문책했다고 한다. 또한 唐代는 역사상 개방된 봉건사회였으므로, 中原과 西域과의 경제 문화교류가 빈번함에 따라 胡舞가 유행하였고, 여기에 동반되어 胡服이 소개되어 중국복식중에 흡수되었

77) [史記] 卷十五 六國年表 第三

78)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刷館, 1981), p.53.

79) [舊唐書·輿服志] 卷四十五 志第二十五, 開元初 從駕宮人騎馬者 皆著胡服 云云

다.

清代에 있어 사회중산계급의 부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雲肩도, 본래는 唐代 敦煌壁畫중의 吐蕃 귀족부녀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또한 元代 冠服洋식이清代에 보편적이 되었고, 중국복식중에 민족특색이 있는 滿洲族의 旗袍 역시 소수민족 문화가 중국복식문화에 융합된 예이다. 遼金과 元代 蒙族婦女의 長袍는 몇번의 성쇠를 거쳐 현대의 유행이 되었다.

## 2. 中國의 少數民族 服飾이 韓國服飾에 미친 影響

지구상 어느 나라이건 간에 복식의 변천 발전 과정중에 외래문화의 영향은 대단히 큰 작용을 한다.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周邊 國家인 中國의 영향을 받아 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中國服飾 자체가 中國의 少數民族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또한 上古時代나 古代에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서 보면 하나의 소수민족이었다.

中國 史書에서 “韓”이라는 명칭은 기원전 194년 이후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시기에 관한 사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중국의 사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三國志]는 중국에서 魏를 이은 晉 初期의 人物인 陳壽의 作으로 그 列傳에 우리나라가 東夷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後漢書], [隋書], [舊唐書] 등 모두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은 東夷傳에 수록되어 있어, 당시 古代 中國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측에서 보면 少數民族인 東夷 南蠻 北狄 西戎중에 하나로 취급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中國 歷史上 趙武靈王은 戰國時期的 趙國의 君主로서 胡服騎射를 실행하여 그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있다. 여기서 ‘胡’라는 것은 北方의 遊牧民族을 지칭하는데 무령왕은 소수민족의 服飾과 騎馬行爲가 戰爭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 차려, 대담하게도 士兵의 軍服을 개

혁하고 騎馬作戰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戰術은 戰車戰이나 步戰이었다. 그리하여 중국 역사상 무령왕은 外民族의 文化를 모방한 第一人子이며, 후세인들이 外族의 풍속습관의 傳統을 모방하는 것은 여기에 起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魏晉 南北朝時代에 사회가 불안하여 각 민족은 서로 융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민족지간의 교류가 불가피하여 이 시대의 복장 발전은 크게 변천하였다. 北朝의 남자 복장은 短衣大袴로 上衣와 바지르, 바지는 무릎 아래서 끈으로 묶었고, 혁대를 두루고, 단화를 신은 모습은 확실히 호북의 영향이었다. 부녀자들도 窄袖 上衣와 豐盛한 下裙로 구성되어, 호북의 조형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위진시대의 귀족부녀자는 주름이 많이 잡힌 裙子를 입었는데 이것은 서북지구 소수민족의 百褶裙으로, 漢末 삼국시대에 중국 內地로 들어온 것이다. 이裙子는 隋唐시대에 이르러 계속 착용되었고, 위진 시대의 부녀들이 즐겨 착용한 줄무늬의 小口袴도 서북지구 소수민족의 복장 양식이었다.

唐代에도 漢族과 西域의 周邊민족과 왕래가 빈번하고 교류가 밀접하여, 복식상에도 흡수와 모방이 많았다. 특히 당시는 부녀들의 호복착용의 유행이 있어, 唐代 陶俑은 여자들의 호복형상을 하고, 胡帽를 쓰고, 재질도 羊皮등 소수민족의 특징을 갖고 있다.

元和 清代에는 소수민족이 본격적으로 中原지방에 투입된 시대로, 이 양시기의 한족 복식은 외래문화의 영향이 더욱 명백해졌다. 元代 窄袖 服裝의 유행은, 騎射의 특징에 적합한 遊牧民族의 복식을 표현하고 있고, 清代服裝에 있어 長衫 馬褂의 馬蹄袖는 완전한 少數民族의 복장으로 轉化된 好例이다. 또한 滿清 婦女子들의 旗袍는 거둔 修整을 거쳐 오늘날의 중국부녀들의 전통복식으로 그 자리를 굳혔다.

이와같이 중국복식이 소수민족의 영향을 받아 변화발전되어 왔음과 같이, 우리나라도 중국왕조가 바뀔 때 마다,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복식이 원래 동이인 호복의 일종이었음을 물론이나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의 주체 세력이 바뀔 때마다 그 영향을 입어, 당대의 團領이 신라에 들어온 것도 소수민족 복식의 영향이고, 元대의 영향으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 졌다고 先學들이 주장하는 것도 몽고족의 영향이고, 청대의 마패라는 것이 변하여 마고자가 되었다는 것도 만족의 영향이라는 것 등, 王服과 王妃服 그리고 冠服의 형태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기본복식인 바지 저고리와 치마 저고리에는 변화가 없었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中國의 少數民族 服飾과 우리나라의 服飾과의 關聯은, 古代에는 우리나라도 中國側에서 하나의 소수민족인 東夷로 취급되어 왔다. 中國 周邊의 少數民族이 中國服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中國의 少數民族의 服飾은 우리 민족 服飾 특히 常服에 영향을 주었고, 기본복식에는 아주 미흡한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 VII. 結 論

中國歷史와 같이, 中國의 服飾文化史도 深遠하며 廣大하다. 나아가 中國은 50여개의 多民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또한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 相互 影響을 주고 받아 풍부하며 다채로운 中華服飾文化를 형성하였다. 또한 同一民族 내부에도 지역이 다르거나 그 계통이 다른 복식습관이 같지 않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 東北과 西北지구의 20개 소수민족의 복식을 개관해 보았는데 이들 소수민족 服飾의 樣式을 결정짓는 요인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 地理環境的 要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服飾은 物質生活의 手段으로서 그 기후와 지리환경을 극복할수 있도록 考案되어 各民族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가령 북방 소수민족의 복장은 비교적 寬大하며, 保溫性 있는 재질인 毛皮

로 만들었다. 즉 蒙古族의 생활지구가 寒溫帶 大陸性 氣候圈중의 蒙古高原으로 겨울이 길며, 기후가 한냉하고, 秋冬時에는 시베리아의 한류가 몰아닥치고 있으나, 주위에는 이것을 막아 줄 만한 高山이 없어 바람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광대한 지구에 말이 교통수단이었으므로 服裝은 防風·防寒·保溫性이 있어야 했으므로 蒙古袍는 소매통이 좁고 길다.

둘째, 服飾의 樣式은 生産方式의 制約을 받는다. 地理·環境이 복식 양식을 결정짓는 작용을 할때, 생산방식이 함께 작용한다. 앞서 말한 蒙古袍의 경우 그 주요 實用機能은 氣溫 氣候에 적응해야 하는 것과 遊牧生活에 적응해야 하는 두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肥大한 蒙古袍는 風寒에 견디고, 야간에는 被褥으로도 사용하여야 함으로, 유목민에게는 일거양득이다. 일반적으로 수렵·유목민족에게 皮衣皮袴·皮鞋皮帽는 酷寒에 보온성이 있을 뿐아니라 일종의 勞動 用具이기도 하다. 大興安嶺 山林 南部의 鄂倫春族은 狗頭皮帽를 착용하고 수렵을 한다. 蒙古·維吾爾·哈薩克族등 遊牧民의 남자는 모두 허리에 佩刀하는데, 그 小刀형식이 다양하고 정교하며, 칼집은 매우 화려하다. 이것은 장식 목적만이 아니라 유목생활에 유용한 것이어서 肉食할 때 뿐만 아니라 野獸나 強盜의 공격에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다.

東北 平原의 赫哲族은 漁獵을 위주로 하는 민족으로, 魚皮服裝이 이 민족의 特色이다. 魚皮長袍·魚皮套袴·魚皮鞋등은 魚皮가 지니고 있는 耐久性·保溫性·防濕·防水성과 가벼운 특징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各種 各樣의 方式으로 服飾은 生産과 生活帶를 편리하게 한다. 가령 蒙古族의 筒靴는 승마시에 편리할 뿐 아니라, 草原上을 보행할 때도 편리하여 풀밭에서 저항력이 적다. 또한 몽고족은 작은 便帽도 즐겨 착용하였다. 遊牧民이나 牧民은 대개 長袍大褂등은 농경생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추장스런 복장이다.

끝으로 복식의 양식은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服飾의 文樣表現이 宗教信仰이나 祖上 崇拜, 自然 崇拜와 깊은 관계에 있어 崇拜物이 裝飾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北方民族의 服飾圖案은 비교적 단순한데 이것은 민족의 종교신앙상의 單一性과 관계가 있다. 이슬람교를 믿는 西北民族, 라마교를 믿는 몽고족, 사만을 신봉하는 동북민족은, 자연숭배의 원시종교 영향이 복식에 있어도 자연색채를 보여 도안의 추상성과 색채의 단순성을 볼 수 있으며, 이런 민족들은 모두 白色을 선호한다. 뿐만 아니라 白色의 物品이나 동물을 선호하고, 서북의 이슬람교도들도 白色 裝束을 선호하여 回族·東鄉族·保安族 남자는 白色帽자를 쓰고, 柯爾克孜族은 內衣를 白色으로 하지만, 中國의 漢族은 白色 裝束을 불길한 徵兆로 간주한다. 이런 崇白의 원인은 종교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종교에서의 淨化를 의미한다.

이상으로 중국의 동북지역과 서북지역의 20개의 소수민족의 복식을 3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째 滿族·蒙古族등의 長袍樣式의 旗袍式, 둘째 維吾爾族을 비롯한 長衫 連衣裙樣式, 끝으로 赫哲族을 비롯한 東北 地區의 皮衣皮袴 양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소수민족은 고유의 복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슬람교 신봉의 소수민족은 전통있는 회교풍의 서역복식을 착용한다. 그리고, 몽고족은 초원지대에서 유목생활을 계속하여 고유의 기마민족 복장을 하고 있어, 이들 민족의 복장은 넓은 의미에서 胡服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들의 복식은 생활과 생산수단에 밀착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다양성을 창출하여 중국에 지배아래에서도 끈질기게 고유의 복장과 언어와 종교를 견지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은 복식사의 산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에 비하여 淸朝를 건설한 女眞 滿洲族은 固有의 滿洲어를 잃고, 민족적으로는 완전히 漢民族에 同化되었으나, 그들 고유의 복장인 旗袍는 中國服에 흡수되어 10억 이상의 大衆에 애용되고 있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參考文獻

### 1. 史 書

[史記] [舊唐書] [後漢書] [遼史] [三國志] [禮記] [文獻通考] [北史] [元史] [漢書] [魏書] [唐書] [通典] [左傳] [管子] [啓禎記聞錄] [皇朝通志] [戰國, 趙策] [黑達事略] [賈子新書] [輟耕錄] [讀史方輿紀要] [中華大字典] [皇朝文獻通考·輿地考·盛京] [皇清職貢圖]卷三 [黑龍江外記] [清會典, 八旗都統] [龍沙紀異] [清會典]

### 2. 著 書

- 林新乃, [中華民俗大觀], 上海: 文藝出版社, 1991
- 李德洙 主編, [中國少數民族文化史 上], 沈陽: 遼寧出版社, 1994
- 黃吉連, “契丹族在俄國歷史上的貢獻”, [民族宗教歷史文化],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 韋榮慧 主編, [中華民族服飾文化], 北京: 紡織工業出版社, 1992
- 國歌民族事務委員會編, [中國少數民族], 北京: 人民畫報社, 1994
- [中國跨界民族], 金春子, 王建民編著 民族出版社, 北京, 1994.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刷館, 1981

### 3. 論 文

- 加藤九祚, “タジク人—その民族學的特徵”, 服裝文化: 155號
- 趙 展, “滿族源流考”, [民族宗教歷史文化],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 ABSTRACT

The costume culture of China is as old and varied as her long history. As China is a multiracial nation and consists of fifty-six minority races including Han race, there are not only fifty-six different costumes in China but each races' costume habit is very different. Therefore, Chinese peninsula can be considered an enormous exhibition center of the costumes.

This study undertook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stumes' mainstream of Korea and east-northern Asia as well as that of China could be examined by investigating the minority races' costumes in the east-and west-northern areas of China.

The process of evolution of the costume of a particular people, country or area is subject not only to constraints related to geography such as climate, topography or local products but is also affected by numerous environmental influences including cultural, economic, social and even political ones in terms of the selection of material, styling, colors and standard of tailoring. In other words, things like philosophy of life, religious belief, aesthetic outlook, moral code, class system, degree of affluence, and cultural exchange will all be refle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features of a people's or country's style of costume.

Of course, there are several factors affecting to the style of costume of the minority peoples in China. However, the only three factors-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production method, and religious belief-will be touch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 would be the decisive one because the costume should be designed to overcome the constraints of climate and geographical environ-

ments. Accordingly, each race has an unique style of costume, The costume of the minority races in the northern parts are loose and wide, and made of warm furs. For instance, Mongolian robe has the quality of anti-wind, anti-cold and warmness, and the width of sleeve is narrow and long.

Secondly, the costume style can be said to be limited by the production pattern, when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was affected to decide the costume style, the production pattern was together affected to it. In case of Mongolian robe, they should satisfy the dual condition as the practical function. One is the condition that they should be fitted to the climate, and the other is the condition that they should be suitable to the nomadic life. Mongolian robes are suitable to the nomadic peoples because they are designed for not only overcoming the cold wind and weather but being used as the bedquilt at night. The costumes of Hoche people was made of the skin of the fish and wild animals because of their main means of living being fishing and hunting. Accordingly, their costumes are durable, warm and water-proof.

Finally, the style of the costume is affected by the religious belief. In other words, the pattern in fash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eligious belief or ancestor worship and nature worship. Accordingly, the symbols of these worship are often emerged in the decoration of the costume. The design of costume of the people in the northern areas of China is very simple. It is related with their monotheism.

On the other hand, the costumes of twenty minority races in the east-northern parts of China can be divided into three racial groups such as the long robes of Man people and

Mongols, Tunics of the peoples in the west-northern areas, and the pants and jackets of Hoche people. The minority races all has not

only the unique costume habit but their costumes are also related with their living style and production means.



中國少數民族分布圖  
(兒童地圖冊：中國地圖出版社)

